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신문

총기 54년

2025년 7월 1일

월간 발행

제보 news@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마 2360호 발행인 : 록경(황보 상민)

www.chongji.or.kr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9년

제 308 호

호국안민기원대법회 종령 법어

불공공덕 모든 중생에게 회향



종령 지성 대종사

지난 49일 동안 퇴전함이 없이 용맹정진하여 주신 스승님과 보살님들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49일 진호국가불공을 원만히 회향하게 된 것은 스승님들과 교도 여러분의 용

맹정진과 선업 공덕의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봄 우리나라는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난을 겪었습니다. 경북과 경남의 여러 곳이 산불로 불타고, 삶의 터전을 빼앗겨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우리 총지중의 모든 종도는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산불로 인한 희생자 영식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였으며, 피해 이웃들이 하루속히 무너진 삶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극심한 상실감과 충격에서 헤

어나지 못하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운 이재민들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도록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여 BBS불교방송, 불교TV, 경상북도, 의성 고운사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우리 총지중은 창종 이래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여 일체 중생의 복락을 위하는 불공을 으뜸으로 여겨 왔습니다. 진정한 해탈은 모든 중생이 함께해야 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개인의 해탈에 앞서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불공을 우선시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총지중에서는 일찍부터 타종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진호국가불사를 비롯하여 통일

태민안의 염원을 담고 사회와 국가, 그리고 중생의 은혜에 감사하는 불공을 해 왔으며 오늘의 이 호국안민기원대법회도 그러한 의미를 담은 법회로서 그동안의 불공공덕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두루 회향하는 법회입니다.

오늘, 진호국가불공 회향을 위한 호국안민기원대법회에 동참하여 주신 각 사원 스승님과 보살님, 각자님들의 정진원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함께 자리하신 모든 분의 일체 소원이 성취되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성도합니다.

총기 54년 7월 15일

불교총지중 종령 지성 합장

제14대 중앙종의회 의원 선서

대전 만보사 승강기 설치 불사 첫 의결



제14대 중앙종의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제174회 임시 종의회에서 앞서 총지사 서원당에서 의원 선서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전 만보사(주교: 승원 정사)의 승강기 설치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참석자 만

장일치로 사부대중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는 9월 말까지 이를 완공할 것을 결의했다. 또 통리원장이 지난 5월 23일 사감위원으로 지명한 정원전수와 지흥 전수의 선임을 결의했다. 이와 함께 승원 정사와 혜광 정사를 유지재단 감사로 선임했다.

지면 안내

5,6면

왕생법문

10,11면

특집 한일불교대회

13면

남해 정사 인도순례기

17면

총지로 여는 삶 ⑦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 해탈절 법회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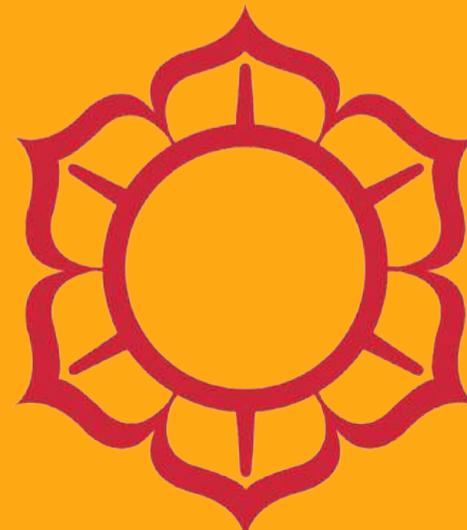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총기 54년 7월 15일(화)

장소 불교총지중 전국사원



불교총지중 |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 Tel. 02-552-1080~3 | www.chongji.or.kr



효강 대종사 열반 3주기 추선불사 봉행

6월 30일 총지사, 극락왕생 발원



불교총지종의 큰 스승 효강 대종사의 열반 3주기를 기리는 추선불사가 6월 30일 본산 총지사(주교: 록경 정사)에서 봉행됐다.

추선 불사는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전국 스승들과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무부장 덕광 정사

의 집공으로 엄수되었으며, 동참자들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가지력으로 영식의 극락왕생과 열반적정을 발원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효강 대종사님의 생전 육성 법문을 들으며, 가르침을 받들어 불법 수행에 매진

할 것을 다짐했으며, 서울경인교구 마니합창단은 ‘어머니 마음’, ‘기도’, ‘해탈’ 음성공양으로 추선의 깊이를 더했다.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효강 대종사님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합창단을 비롯한 참석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말을 전했다. 유가족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참석 대중에게 합장하며, 감사의 예를 표했다.

종단의 위상을 높이고 한국 밀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효강 대종사는 제9, 10, 11대 종령과 5대와 9대 통리원장 등을 역임했다.

BBS불교방송이사, BTN불교TV 개국 이사 종단 및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한국불교 발전에 큰 업적을 남겼다.

시각화 지수 유가족 1천만 원 종단 회사

지난 1월 불생불멸의 연화장세계로 든 시각화 지수의 유가족이 평소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교화발전기금으로 종단에 1천만 원을 회사했다.

금강륜 전수(밀행사 주교)와 범상 정사(수인사 주교)는 모친인 시각화 지수의 49재를 마치고, 밀법 전수와 교화 발전에 한평생을 바치신 큰 뜻을 기리고자 유가족의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각화 지수는 1973년 5월 16일 밀양선교부 초대 주교로 부임해 부산 지역에 정통 밀교의 씨앗을 심고 교화의 꽃을 피웠다. 법랍 50세, 세수 88세로 1월 26일 입적했다.



문체부 종무실장, 통리원 예방

김도형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은 지난달 9일 통리원을 예방하고, 통리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와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통리원장 록경 정사는 “정부의 종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식 업무인 만큼 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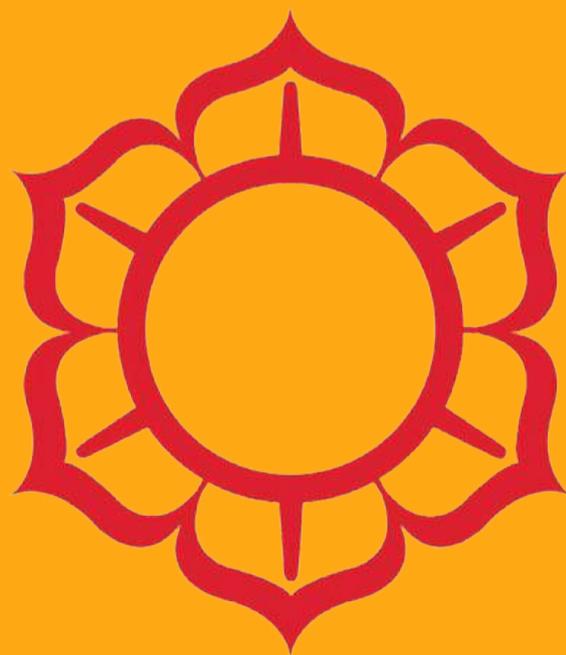
모가 큰 현교뿐만 아니라 총지종에도 관심을 두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왼쪽부터 이상효 종무관, 재무부장 법선 정사, 김도형 종무실장, 통리원장 록경 정사, 총무부장 덕광 정사.

부산경남교구 호국안민기원대법회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일시 _ 총기 54년 7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_ 전라남도 화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지혜의눈

신의 이름으로 '전쟁'

생명관과 종교적 태도의 차이
불교는 개종보다 조화와 공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벌써 햇수로 4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6월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폭격해 과학자와 군 지휘관을 암살하면서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은 예측되었던 것이고, 이 전쟁이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제3차 세계 대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역사상 전쟁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인데,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들의 전쟁만큼은 종교적 갈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민족은 같은 셈족 계통이고, 이스라엘에 의해 쫓겨난 팔레스타인인(人)은 본래 이스라엘과 하나였다가 갈라진 민족입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는 '이산(離散)'으로 번역되는데 한 민족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인의 디아스포라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주한 지역에서 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시기 히틀러에 의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에 나라를 세웠는데, 문제는 유대인이 떠난 후 그곳에 2000년 동안 살아온 팔레스타인인을 강제로 쫓아냈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과 공존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유대인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물론 여전히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차별 속에서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탄압받던 유대인이 정착 나라를 세운 후에는 그곳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있는 모습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우리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구분해서 바라보지만, 종교학자들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로 묶어서 봅니다. 세 종교의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종교는 서로 사이가 매우 나쁩니다. 기독교는 가톨릭과 정교회로 분리된 후 가톨릭에서 다시 개신교가 분리됩니다. 비록 예수를 신으로 믿지만, 점차 다른 종교로 변화하는 중입니다. 이슬람교도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뉘지만, 이 두 종파는 점차 별개의 종교로 나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수많은 전쟁이 그들의 신앙에 의해 자행되었습니다. 현재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은 식민지의 토착 신앙과 문화를 말살하고, 자신들의 종교를 강제한 결과입니다. 이슬람교의 전파 과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전파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전파된 것입니다. 비록 세계 4대 종교 중 교세가 가장 작지만 - 심지어는 인도의 민족종교인 힌두교보다도 작다 - 가장 평화로운 종교라는 것이 모

든 종교학자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남방불교와 동아시아 지역 북방불교의 차이를 앞서 예를 든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사례와 비교하면 매우 큼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분리된 후 벌어진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방불교와 동아시아 지역 북방불교는 경전이나 승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 배우려는 노력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와 불교의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생명에 대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대해 자비(慈悲)를 말하는 불교에 비해 신을 강제하고 거부하면 폭력을 행사했던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는 그 출발점이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불교로 개종시키는 것은 불교도에게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본인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내가 일본인으로 귀화할 필요가 없듯이, 각자 자신의 종교를 가지고 서로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평화롭고 열린 모습은 오직 불교에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칼럼니스트 김태원



인생의 가치를 자각하고 수행에 힘을 주는
불교총지종 「불교총전」

「불교총전」은 총지종 종조 원정대성사께서 현교(顯敎)와 밀교(密敎), 대승(大乘)과 소승(小乘)의 모든 경전 가운데서 그내용을 광범위하게 뽑아 불교전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통불교적(通佛敎)인 입장에서 편찬하였습니다. 일반인들에게는 다양하면서도 체계 있는 불교교과서이고, 불자들에게는 수행의 지표가 되는 부처님 말씀입니다.

문의 불교총지종 통리원 및 전국 사원 | 전화문의 02)552-1080

윤금선 작가와
함께 읽는 『중조법설집』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받고 있는 업^業이 그것이다

제장 교상(敎相)과 사상(事相) 편(篇) 제3절 각종 논설

8. 사물의 발전 법칙

첫째, 선인과 선연이 결합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선과가 생긴다.

좋은 종자를 비옥한 땅에 심는 것과 같다.

둘째, 선인과 악연이 결합하는 경우

우세한 편에 따라 선과도 생길 수 있고

악과도 생길 수 있다.

셋째, 악인과 악연이 결합될 경우

물론 악과가 생긴다.

넷째, 악인과 선연이 결합하는 경우

우세한 편에 따라 선과도 생길 수 있고

악과도 생길 수 있다.

언제부터인가 자주 하는 말이 생겼다. 누가 봐도 행운이라고 여길 만큼 대박 난 사람들을 보면 ‘전생에 복을 참 많이 지었나 보다’ 여긴다. 물론 뜻하지 않은 불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의 선부른 추측이나 예단은 절대 삼간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전생을 갖다 붙이는 건 제2의 가해이자 폭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전생의 복으로 행운을 거머쥐었다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어쭙잖은 일이지는 하다. 거저 얻은 것처럼 보여도 당사자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는지 남들은 모른다. 어설픈 착각이기 쉽다.

부처님이 아닌 이상, 행복과 불행의 술한 인연을 어떻게 다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인가? 함부로 판단할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다. 다만, 전생에 지은 게 있어

서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은 편하다. 부러움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시샘은 거둘 수 있다. 지은 공덕으로 받은 과보라 여기니 선선히 받아들이고 축하해줄 용기도 생긴다. 그 정도 선이라면 전생의 복 운운해도 괜찮지 않을까?

전생과 현생, 그리고 다음 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윤회를 궁금해하는 이들에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받는 업이 그것이다. 다음 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지금 짓고 있는 행위가 다음 생의 과보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그리고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다. “일체중생이 현재에 사대와 시절과 토지와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과 안락을 받는다. 이런 이유로 나는 일체중생이 모두 과거의 본

총지사 교도 광고

양재동 꽃시장
태광식물원
WWW.YJFLOWER.CO.KR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농수산물화훼유통공사 나동 97호)
전화: 02-579-2249 휴대폰: 010-6350-5583 (백현일)

업만으로 고통과 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하느니라.” 본인의 전생 업뿐만 아니라 현세에 우리가 만나고 함께 만들어가는 숲한 공업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 만물이 연관되어 있다는 연기법과, 원인과 조건에 따라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원정 대성사께서는 ‘사물의 발전 법칙’이라고 하셨으니, 세상의 이치 일 뿐 아니라 이를 토대로 존재가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한 것이다.

연기와 인과를 믿는다면 착하고 바르게 살자 마음먹는 게 당연하다. 최소한 나쁜 일은 하지 않으려 노력한다. 성철 스님께서서는 열반에 드시면서 마지막 법문을 설하셨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을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 갈래나 되나니, 둥근 한 수레바퀴 붉음을 내뻗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오현 스님께서도 이렇게 일갈했다. “천방지축 기고만장 허장성세로 살다 보니 온몸에 털이 나고 이마에 뿔이 돋는구나 억!” 믿음과 공부가 깊으면 깊을수록 부끄러움

“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삶의 철학과 의지,
 실천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

이 넘치고 참회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을지 모른다.

부처님께서서는 사람을 네 종류로 설명하셨다. 어두운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밝은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

전생에 무슨 공덕을 지었나 싶게 복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유한 환경에 훌륭한 부모를 만난 것도 모자라 머리도 좋고 재주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일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일반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가진 것에 취해 교만하고 방탕한 생활에

젖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흔하다.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나 돌아볼 정도로 딱한 경우도 많다. 박복하다 싶게 시련이 끊이지 않는 와중에도 자신의 길을 개척하는 사람 역시 적지 않다. 고난과 어려움을 자양분으로 삼아 자신을 성장시키는가 하면, 부모를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화를 키우고 업을 무겁게 하는 사람도 있다.

출발이 어찌 되었든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는 법이다.

인과의 법칙은 우리를 숙명이나 운명으로 몰아넣지 않는다. 태어나는 순간 시작도 천차만별이듯 업을 바꿔 가는 모습도 천차만별이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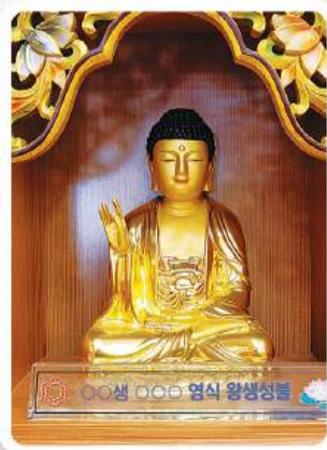
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했다. 삶의 철학과 의지와 실천이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든다. 세상에 굴림을 당하지 말고 세상을 당당하게 굴리라는 의미에서 주인공으로 살라 하고 수행하라 하는 것이다.

대혜 종고 스님은 『서장』에서 참선 수행하는 요긴한 방법으로 “익은 것은 설게 하고, 설은 것은 익게 하라.” 일렀다.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눕고 싶고, 갖고 싶고, 이기고 싶은 오랜 습관을 멀리해야 한다. 익숙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욕심부리고 화내고 잘난 체하고 게으른 버릇을 떨쳐내야 한다. 그럴 시간에, 경 읽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베푸는 연습을 해야 한다. 마음 굳게 먹었다가도 금세 허물어지니 서툰 수행 습관을 늘리고 익히는 것 외에 마음공부의 정도는 없다.

좋은 인을 타고 나 좋은 연까지 만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순한 경계가 독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경계가 복이 될 수도 있다. 전생 복은 모르겠고 지금 복은 얼마든지 키워갈 수 있으니 다시 시작이다.

〈무명을 밝히고〉 〈거룩한 만남〉
 윤금선 BBS 구성작가

진언 밀법도량 정각사 득락전



“**현생에 이고득락, 내생에 왕생성불**”

살아있는 중생은 이고득락을 얻고,
 영식은 안식을 얻는 기도도량 진언생활 불교총지종 정각사

정각사에서는

조상님과 가족, 일가친척의 영식 **천도불공**과
 개인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축원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생법문

사바세계는 인연^{因緣}과 감인^{堪忍}의 세계



재난이 닥쳐왔을 때
세상을 원망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 뒤 찾아오는
영광과 성공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 땀 흘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잡(會雜)의 세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행을 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마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자신에게 고통과 불행이 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 정월이 오면 토정비결을 보고, 신수를 보고, 삼재풀이를 하는 등 별별 액막이를 하느라 부산한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심지어 부처님의 도량에까지 와서 일 년 신수를 보아 달라고 하는가 하면, 길흉화복을 묻고, 혹여 그런 것은 정법이 아니라고 설명하면 오히려 그런 것도 볼 줄 모르는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인생에 있어 안락과 행복은 중요한 것이며, 고통과 불행은 멀리 여의고 싶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바세계입니다. 사바세계는 상대적인 가치로 얽히고설켜 있는 회잡(會雜)의 세계요, 참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감인(堪忍)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일생 갖가지 고난과 고통을 겪어야 하며, 고난을 극복하고 참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 사바세계 중생의 숙명입니다. 업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중생은 자기 의지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업보에 의해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마치 갖가지 잡된 인연의 그물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서 마음대로, 뜻대로 자유롭게 살 수 없습니다.

번뇌는 팔만사천

중생은 모두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으며, 윤회의 그물에 걸려 있는 고기와 다름 바 없습니다. 따라서 사바세계는 고통과 불

행이 언제 닥쳐올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일찍이 이 사바세계를 고해(苦海)라고 하시고 중생계에 태어난 모두가 피하려고 몸부림쳐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여덟 가지 근본 고통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는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과 같은 큰 괴로움이 있으며, 그밖에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는 고통, 미워하고 원한을 품은 것과 만나야 하는 고통,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 오온에 대한 집착에서 생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괴로움이 어찌 이 네 가지, 여덟 가지만 있겠습니까? 중생의 번뇌가 팔만사천 가지라면 괴로움도 팔만사천 가지입니다. 팔만사천이라는 숫자는 ‘한량없이 많

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중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살이에는 뜻하지 않은 재난 또한 많습니다. 흔히 팔난(八難)이라 일컫는 배고픔, 목마름, 추위, 더위, 화재, 수해, 태풍, 전쟁이 쉴 사이 없이 침노합니다.

고난을 친구처럼...

하지만 중생은 이러한 고난을 싫어합니다. 나에게만은 고난이 닥쳐오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피해 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러한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경악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 비탄에 젖거나,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피하고 달아난다고 하여 그 고난과 시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사는 한 고난을 친구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피하고 달아날수록 고난과 시련은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누구에게나 고난과 시련이 올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땅에 넘어진 사람은 땅을 의지해야 일어날 수 있듯이, 고난과 시련을 겪는 사람은 그것을 의지처로 삼거나 디딤돌로 삼아야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이 찬란하듯이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영광과 승리는 더욱 값지고 빛납니다.

영광 뒤 고난을 보아야

창밖의 푸른 잎은 지난겨울 춥고 어두웠던 고난과 시련을 이겨낸 결과로 저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우리 앞에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대개 고난과 시련의 시간과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 뒤에 있는 고난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을 겪은 뒤에 찾아오는 영광과 성공을 위해,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인내와 땀 흘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

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해 농부는 한여름 땀방울 아래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통을 감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성공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얻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도둑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성공한 사람에게는 고난과 시련이 도전의 기회이자 영광의 디딤돌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국왕의 지위를 버리고, 나라를 버리고, 사랑하는 처자를 버리고,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난행과 고행을 하신 후에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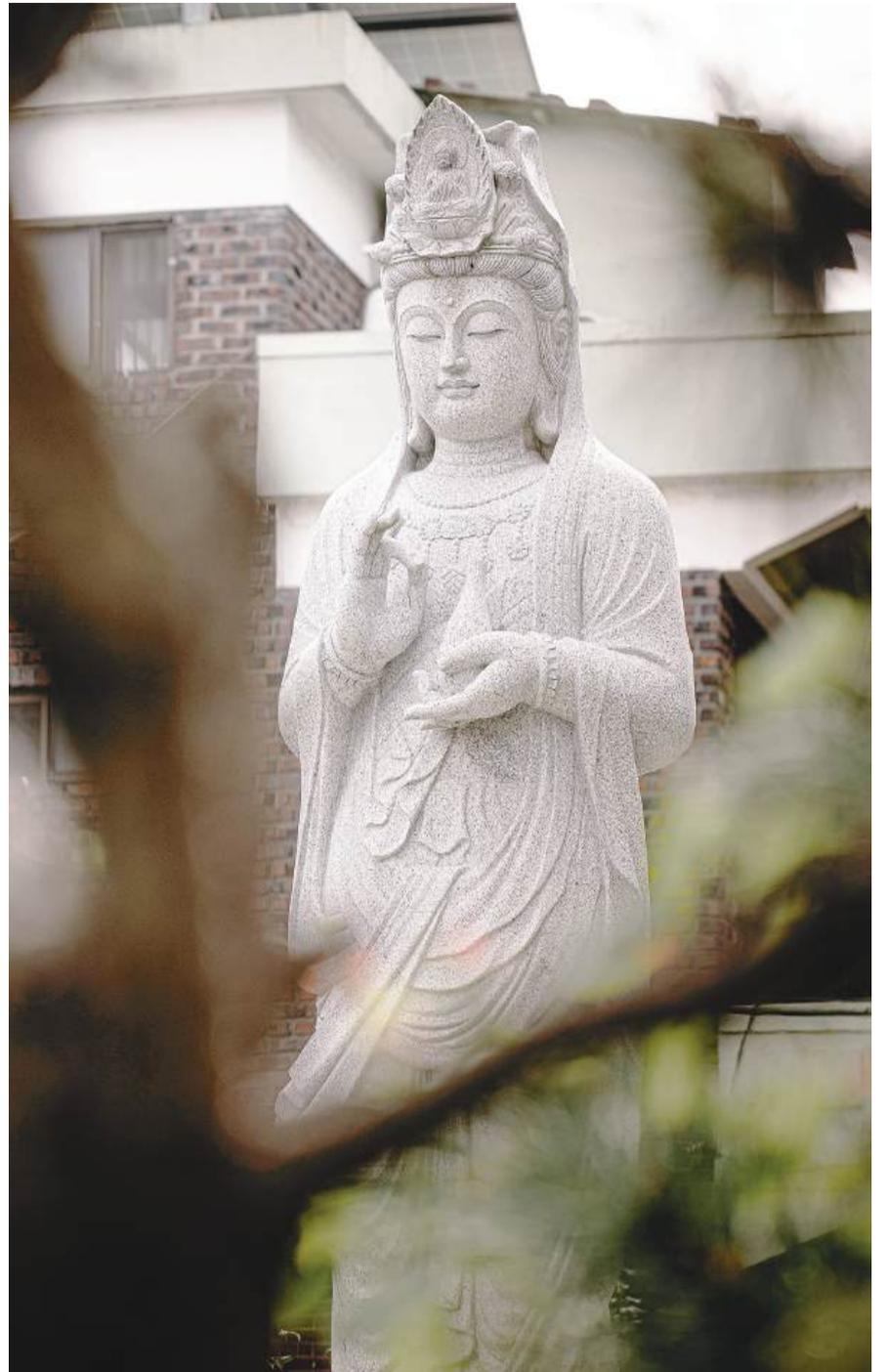
훈련은 참회와 수행

고난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나'라고 하는 소아에 집착하기 전에 세상 이치를 관조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인지 살펴보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은 다름 아닌 수행입니다. 수행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선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참회가 있어야 합니다. 재난이 닥치면 보편적으로 자신의 허물을 살피기에 앞서 세상을 원망하거나, 남 때문이라는 생각하거나, 재수를 탓하거나, 팔자타령이나 신세 한탄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사실 괴롭다, 고통스럽다, 행복하다, 안락하다 등등 많은 개념이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나'라고 하는 주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일어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나 자신이라고 하는 실체로서의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멀쩡하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없기는! 무슨 소리냐?'라고 항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자신을 바로 보라'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므로 한 번도 같은 존재란 없습니다. 또한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서로 의지하는 상관관계에 의해 존재하기 때문에 고정불변하는 나라는 실체는 없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대로 이루어진 몸뚱이가 아무리 튼튼하다고 해도 생로병사(生老病死)에 의해 마침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나의 정신 또한 한 생각 일어나서 잠시 머물다가 바뀌어 사라져 버리는 생주이멸(生住異滅)의 흐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나'를 구성하는 육체와 정신 모두 끊임없이 변하다 사라지는 허망한 존재에 불과하므로 무아라고 하셨습니다. 따

라서 나라는 주체가 본래 없는데 그 밖에 개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봄날의 아지랑처럼 허망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무상과 무아를 통해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는 도인에게 행복이니 불행이니 권력이니 명예니 고통이니 괴로움이니 하는 말 따위는 그대로 잠꼬대입니다.

문제는 존재의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온갖 시비와 병통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자신을 바로 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마음가짐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고난을 행복으로, 시련을 성공으로 바꾸는 것도 마음가짐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겸허해야 합니다. 삶의 진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눈앞에 있거나 발아래 있습니다.

환골탈태 정신으로 시대변화 부응, 종단 일신 서원

총지종의 역사

제4부
제2의 도약을 준비하다(2011년~2021년)

01. 총지로 하나 되다

새로운 종풍운동

총지종은 사상·교의적 토대와 인적 기반을 탄탄히 하며 내실 있는 성장을 계속했다. 사회공헌사업을 비롯한 사회 활동에 적극 나서 불교계 주요 종단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교세를 확장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를 통해 다방면의 불교 교류에 동참하고 국제재가불교지도자대회를 주관하는 등 생활불교 재가종단으로서의 가치와 위상을 확고히 하며 건실한 발전을 이어왔다.

하지만 요원의 불길처럼 번져가던 종단의 성장 속도가 차츰 둔화됐다. 각종 교화사업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싹트기 시작했다. 종단 발전은 교도를 이끌어가는 승직자에게 달려있다는 인식 아래 승풍을 진작하는 데 주력했다.

제11대 효강 종령은 2010년 말 추계 강공회에서 스승들을 향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삼밀관행 수행으로 거듭나 승단과 교도를 위하는 마음으로 생활불교를 널리 알릴 것을 요청했다. 승단을 결속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스승상을 정립하여 중생제도와 교화에 열성을 다하기 위해 5개항의 새로운 종풍운동을 전개했다.

- ① 뼈를 깎는 듯한 수행으로 용맹 정진하여 삼밀관행(三密觀行)을 실천하자.
- ② 부처님의 재산인 정재를 아끼고 철저히 관리하자.
- ③ 부처님의 가르침에 즐거운 마음으로 수순하자.
- ④ 생활불교를 널리 홍보하며 실천하자.
- ⑤ 중생제도에 열과 성을 다하며 신명을 바치자.

스승은 매일 교도와 접촉하는 교화의 제일선에서 활동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그 사명이 중차대하고 따라서 종단의 성쇠를 좌우함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므로 스승은 세간 고락에 초연하여야 하며 먼저 자기의 인생관이 확립되고 그러한 지표로서 생활하는데 그 스승의 인격이

완성되고 따라서 이해의 영육에도 굴복하거나 동요되지 않는 지조 있고 정의에 투철한 모범적인 스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모든 교도들은 그 스승을 신뢰하고 존경함으로써 복전이 될 것이요, 일반이 흠모하여 교화는 날마다 흥왕하고 부처님과 일체중생이 다 가호할 것이다. (『종조법설집』 「스승의 사명」 중)

교도를 이끌어가는 스승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지극정성으로 불공을 드려 그 법력으로 신심과 신념을 가지고 중생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교도의 정성어린 보시를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불법에 수순하여 생활 속의 불교, 불교 속의 생활을 실천하는 종단 가치를 몸과 마음을 바쳐 되새기며 포교에 임했다. 전 승직자는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교도의 모범이자 진정한 스승이 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뼈를 깎는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시대변화에 부응하여 종단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 혁신의 기본 방향성을 새로운 종풍운동으로 확립한 종단은 변화와 혁신을 향해 전진했다. 2017년 7월 17일 단양군에서 열린 전국 합동 호국안민 기원 대법회.

을 일신할 것을 서원했다.

원정 대성사의 위대한 가르침과 원대한 이상, 그리고 진언밀법 수행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혁신과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총지의 가르침을 시대에 구현하기 위해 종단의 근본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수행력을 강화하여 승풍을 진작함으로써 종단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확보했다. 시대에 부응하는 교화 혁신의 기본 방향성을 새로운 종풍운동으로 확립한 종단은 변화와 혁신을 향해 전진했다.

각종 불사의례 연구

2010년 말부터 시작한 상장례 및 49재 천도불사 의식에 대한 연구와 검증 작업은 보다 장엄한 장례식 천도불공 의례와 각종 의식에 맞는 진언 및 법구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서원당, 장례식장, 입관, 발인, 장지, 49재 등 시기와 장소에 따른 각종 장례의식의 원칙과 기준, 독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교구 회의와 종책 토론회를 통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불사법요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되, 장단과 음률의 세부적인 독송법을 마련하고 일반재와 불공의 추복법문을 다양화하여 득락전 불사법요, 기제사, 명절제사의 의식을 정비했다.

개정안에 대한 시연과 심도 깊은 검토작업을 거쳐 2013년 4월부터 상장례 및 49재 천도 불공 불사법요를 개정 시행했다. 장엄한 의식과 간절한 정성으로 망자의 업장소멸과 극락왕생을 발원하고자 밀교 특유의 각종 진언과 계송을 증보했다. 불공의 종류는 분향소, 장지, 반환재, 49재 천도 불공으로 세분화했다. 법문 독송과 발원문을 추가하였으며, 기존의 낭송 방식에 염불 방식의 독송을 가미하고 동발, 경쇠 등 법구를 새롭게 도입했다.

개정된 불사의례는 2015년 개정판 교도용 『불사법요』를 발간하여 전국 사원에 보급했다. 밀교연구소는 2018년 10월 종단의 불사법요를 재정비하기 위해 불사법요위원회를 발족했다. 9명의 위원과 득락전을 갖춘 11개 사원의 주교를 위원으로 구성하



2010년도 부산 정각사에서 열린 종책 토론회 2차 회의 모습.

고, 불사법요의 통일과 재정비, 득락전 운용과 불사의식 개발, 종단 교상의 재정립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여 연구를 이어갔다.

밀교관법에 대한 연구와 시도는 경계를 두지 않고 심화 발전했다. 2013년 11월부터 월초불공에서 사종수법의 종자관을 시행했다. ‘람’자를 관한 후 밀교의 호마법인 사종법의 종자를 각각 관하도록 했다. 식재관법은 매월 첫째 주 식재 기간에 ‘바’자를 관하고, 증익관법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증익 기간에 ‘아’자를 관하며, 경애관법은 매월 셋째 주 경애 기간에 ‘하’자를 관했다. 항복법의 종자관법은 종단 방침에 따라 시행하지 않았다.

보다 다양한 관법 연구와 교육이 이어졌다. 몸과 입과 뜻으로 행하는 밀교의 삼밀수행은 신밀(身密)의 결인과 구밀(口密)의 진언과 의밀(意密)의 관법을 모두 갖춰 수행하는 만큼 진언종자를 관하는 종자관, 월륜관(月輪觀)으로서의 람자관, 호마의 사종관법, 특정 대상을 관하는 본존관, 만다라관 등에 대한 연구와 실참수행을 병행했다. 이 가운데 번뇌망상을 사라지게 하고 청정삼매에 들도록 하는 종자관을 대표하는 람자관을 우선에 두고 집중적으로 교육했다.

이밖에도 대일여래의 상징인 ‘아’자를 통해 본불생의 이치를 체득하

- 원정 대성사의 위대한 가르침과 원대한 이상, 그리고 진언밀법 수행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혁신과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 총지의 가르침을 시대에 구현하기 위해 종단의 근본 철학과 가치를 분명히 하고, 수행력을 강화하여 승풍을 진작함으로써 종단 발전의 내적 동력을 확보했다.

“종조님께서서는 밀교의 삼밀수행 체계를 명확하게 제시하셨어요. 신밀의 결인, 구밀의 진언염송, 의밀의 관법까지. 하지만 의밀 관법 부분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거나 정착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종단에서는 이미 『현밀원통성불심요집』에 의거해 람자관을 행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실행하는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고, 사종수법 역시 실제 관법으로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했지요.

실제로 관법을 시행해보니까 염송 위주의 불공에 익숙했던 터라 몸에 안 익어서 그런지 생소하기는 했지만 새로운 힘을 느낀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종조님께서 강공회 때 수행법을 제시하고 설명해 주시고 승단 전체가 몸소 체험해 보고 합의했던 것처럼 앞으로 밀교 관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시행해 보고 체득하는 과정이 꾸준히 뒷받침되어야 정착이 되겠지요.” - 불교총지종 50년 사 발간위원회 스승 인터뷰 중

2019년 스승 심화교육에서는 승직자로서의 본분을 되새기는 의미에서 종단에서 발간한 『초발심자경문』을 교재로 교육했다. 그동안 중원사 수련원에서 산발적으로 진행했던 밀교의 관법개요와 월륜관, 아식관, 아자관 등의 교육을 전 승단이 한 자리에 모여 실참했다. 이로써 명실상부한 정통밀교종단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법의 초석을 마련했다.

는 아자관 수행을 비롯하여 월륜관, 아식관(阿息觀) 등 밀교의 여러 비밀수행관법을 중원사 수련원과 스승 심화교육에서 다채롭게 시도하였다. 밀교관법의 이론과 실재를 배우고 직접 수행해봄으로써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교도에게 가르칠 수행법을 정립하는 데에도 매진했다.

“새로운 50년을 향해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

제42회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범어사에서 개최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 부회장 통리원장 록경 정사가 학술 강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회에 함께 참석 중인 종단 스승 모습.

제42회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6월 17일부터 2박 3일간 부산 범어사에서 개최됐다.

(사)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이하 한일불교)는 일한불교교류협의회(회장 후지타 류조·藤田隆乘, 이하 일한불교)와 함께 6월 17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2차 한일·일한 불교문화 교류대회 환영 만찬’으로 대회의 막을 열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측 부회장 통리원장 록경 정사를 비롯해 종단에서는 사감원장 범일 정사, 총무부장 덕광 정사, 성화사 주교 서령 정사, 자석사 주교 도우 정사, 실지사 주교 서강 정사가 참석했다. 또 회장 진우 스님, 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 이사장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한국 측 100여 명과 회장 후지타 류조(진언종 평간사 45대 관수), 부회장 시바타 테츠겐(柴田哲彦·정토종 대본산 광명사 113대 범주), 이사장 토마츠 기세(戶松義晴·정토종 심광원 주지) 스님을 비롯한 일본 측 50여 명, 범어사 주지 정오 스님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세계평화기원법회 후 한일 양국 불교대표단이 범어사 대웅전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환영만찬에서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1977년 서울에서 처음으로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가 열린 이래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깊은 우정을 쌓아왔고, 긴밀한 협력 아래 불교의 가치를 실현해 왔다.”면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50년을 향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는 따뜻한 대화와 우정은 한·일 두 나라 불교의 100년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한불교 신임 이사장 토마츠 기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대회에서 양국 불교도는 오랜 세월 쌓아온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우호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며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양국 불교도가 함께 협력해 나감으로써 하루속히 세계평화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제42회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의 본대회인 세계평화기원법회는 18일 오전 10시 범어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봉행됐으며, ‘한일 불교문화 교류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며-지속 가능한 교류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강연회와 공동선언문 발표는 오후 1시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19일 오전 기장 장안사 순례를 끝으로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부산 범어사=박재원 기자



세계평화기원법회에 참석 중인 통리원장 룽경 정사를 비롯한 한일불교 대표단 참석자들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6월 17일 오후 6시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제42차 한일·일한 불교문화 교류대회’ 환영 만찬이 개최됐다. [금강신문]



목표 의식을 가진 삶이 성공 지수를 높인다

삶의 현실이 어렵거나 곤란한 상황이 도래(到來)했을 때 우리는 어떤 지혜로움으로 난국을 타개할까?

심리학자인 R. 슈타인버그 전 예일대학 교수는 “집념(執念)이 목표 의식의 아들이라면, 열정은 바로 집념의 어머니”라고 했다. 이 말은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 목표로서의 가치가 있고, 그 목표가 가치 있을 때 집념이란 의미로 더욱 강인해지며, 그 집념은 뜨거운 열정(熱情)으로 솟아오르게 한다는 말이다.

요즘 지식층에서는 흔히 지능지수(IQ)보다 감성지수(EQ)가 더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한다. 슈타인버그 교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공지수(SQ)’라는 개념을 내걸고, 그것이 성공의 결정적 인자(決定的 因子)라고 주장한 바 있다.

슈타인버그 교수는 ‘성공지수’

를 구성하고 있는 주된 요소로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능력(能力)’, ‘충동을 억제하는 의지력(意志力)’, ‘패배 의식을 거부하는 자신감(自信感)’, ‘성취하고자 말겠다는 집념(執念)’, 그리고 ‘창조적 사고(創造的 思考)와 실천력(實踐力)’의 다섯 가지를 들었다.

이 다섯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집념’이라는 요소를 매우 의미 있는 키워드로 제시하고 싶다. 미래를 지향한 불멸의 의지와 꿈을 키우고, 집념이라는 노력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앞당겨 가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G. 프리트론이란 미국의 저명한 기자도 정계, 산업계, 과학계 그리고 예술과 스포츠 분야에서 승리와 성공 가두(街頭)를 질주하는 많은 명사를 인터뷰하고 난 후, “그

들은 예외 없이 끝장을 보는 집념의 사나이였다.”라고 술회하였다.

우리나라도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집념의 사나이’란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자라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고비마다 위기를 호기(好期)로 되살려 마침내 최고의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었다. 불멸의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장보고나 장영실이 그랬으며, 지석영, 허준 등 모두가 ‘집념의 사나이’임에 틀림이 없다.

칠전팔기(七顛八起)로 성공을 이뤄낸 집념의 이야기엔 감동이 있다. 그러나 집념이 도를 넘어 집착으로 변질되면 종종 낭패를 초래하기도 한다. 마음을 너무 한 곳에 집착하면 길을 걷다가도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머리가 나무에 들이받혀도 알지 못한다.

불교에서는 집착(執着)과 집념(執念)을 같은 뿌리로 보지만 일상으로는 사뭇 다르다. 집념은 권장할 만한 일이나, 집착은 버려야 하는 쪽이다. 집념은 다분히 감동적

이나, 집착은 잘못되면 화(禍)를 자초할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구분이 몰입해 있는 당사자에게 무의미하다는 점이다. 자신은 한 우물을 팔 뿐인데, 남이 집착으로 여긴다면 답답해하기까지 한다.

집념엔 용기와 슬기가 동행하지만, 집착엔 오기와 객기(客氣)가 병행할 뿐이다. 최선이 아니면 차선(次善)을 택하더라도 객기는 부리지 말고,正道(正道)를 걸어야 한다. 때로는 ‘집념’이란 단어가 주는 분위기가 어딘가 어둡고 전투적이라고들 하지만 그것은 집착이 의미하는 바이고, 정도에 맞는 집념이야말로 오히려 인간다운 삶이 아닐까 한다.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이상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이룩하는 것이 ‘대장부(大丈夫)’라면, 무서운 집중력과 정신력, 열정으로 뭉쳐진 ‘집념의 사나이’야말로 진정으로 존경받아야 할 오늘날의 우리들의 영웅이 아닐까 한다.

시인, 전 동해중학교 교장 탁상달

혜광 정사의
서원당 안의 불교④

총지종 서원당(법당) 중앙에는 본 존다라니인 '옴마니반메훔', 왼쪽에는 금강계만다라, 오른쪽에는 태장계만다라가 봉안되어 있습니다.

만다라(曼荼羅)는 '본질, 정수(精髓)를 언다'라는 뜻입니다. 본질, 정수는 우주 삼라만상의 존재 원리를 뜻하는 것으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말합니다. 넓게는 깨달음의 세계, 좁게는 깨달음의 세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뜻합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금강정경』을 근거로 그려졌습니다. 종교적 실천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생이 부처가 되기 위한 수행과정이며, 방편법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이 만다라에는 1,461존이 모셔져 있고 무수한 불보살과 제존(諸尊)이 나오는데, 중앙에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많은 불보살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9회에 걸쳐 펼쳐진다고 하여 '구회만다라'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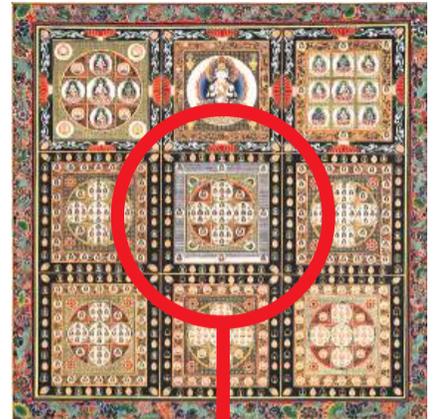
이번 호에는 9회 중 성신회(成身會)에 대하여 알아보니다. 금강계만다라는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

행의 과정(상전문)과 깨달음을 이룬 후에 일체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교화의 과정(하전문)으로 묘사됩니다. 성신회는 일체의 성취보살이 오상성신관을 닦아 금강계 대일여래의 몸을 성취한 것을 나타내며, 갈마회는 대일여래가 얻은 깨달음의 활동과 전개를 나타냅니다.

성신회의 구조를 살펴보면, 큰 원[大圓輪]과 중간원[中圓輪], 작은 원[小圓輪]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큰 원 안에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다섯 개의 중간 크기의 원[中圓輪]이 있고, 그 다섯 개의 중간 원 안에는 다시 중앙과 동서남북으로 다섯 개의 작은 원이 각각 들어 있습니다. 작은 원 안에는 불보살의 존상(尊像)이 그려져 있는데, 모두 25존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큰 원의 외곽 둘레에는 팔방으로 작은 원이 8개 있는데 여기에도 보살이 존상이 그려져 있고, 모두 8보살입니다. 또 중간원의 동서남북 사이에 4개의 작은 원이 있는데, 그 속에도 4보살의 존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12보살과 앞의 25존을 모두 합하면 37존이 됩니다. 37

금강계만다라 - 성신회(갈마회)

사인회	일인회	이취회
공양회	성신회(갈마회)	항삼세회
미세회	삼대야회	항삼세삼대야회



- 비로자나여래
- 우량수여래
- 불공성취여래
- 아촉여래
- 보생여래

존에 예경하고 의식을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금강계 삼십칠존례(金剛界 三十七尊禮)'라 합니다. 진각종에서는 법회를 올릴 때마다 이 금강계 37존을 칭명하며, 또 진각종의 상징인 대일상(大日相)은 바로 금강계만다라의 원륜상(圓輪相)을 나

타냅니다.

성신회는 37존과 현겁천불(賢劫千佛), 지수화풍의 사대신(四大神), 이십천(二十天)이 배치되어 있고, 불보살의 세계와 제천(諸天)의 외호(外護)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불교총지종 가정희사고



사이즈 가로 25cm
세로 15cm
높이 15cm
정가 60,000원
문의 02)552-1080
불교총지종 통리원

가정희사고가 제작되어 보급 중입니다.
희사공덕으로 서원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법신불에 공(供) 할 것은 아무데나 못 쓸지라 정성으로 정시(定施)하고, 때로 차시(差施) 모은 것은 한 분 밖에 다시없는 법신불에 희사한다.<중략>

정시(定施)는 제독(除毒)이며 또 곡식을 심는데 밀거름과 같으며 차시(差施)는 옷거름과 같이 그 때마다 속히 그 서원을 성취하고 절량(絶糧)은 생미(生米)로써 때때로 불공함이니 각자가 이것을 실천하여 법신부처님께 공양을 올려보면 다 진실로 자기에게 곧 실지 묘과(妙果)가 있는 것을 알지니라.

<중조법설집 보시와 법시 편 중>

남해 정사의 인도성지순례기

열반상에 가사 덮어드리며 반야심경 독송

⑦ 열반의 땅 쿠시나가라

다섯째 날 부처님의 열반 여정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바이살리를 참배하였다. 바이살리는 부처님 당시 인도에서 가장 진보적이며 상업이 발달한 도시로, 비구니 승단이 최초로 시작된 곳이다. 이곳은 보수파인 상좌부와 진보파인 대중부로 분열이 시작된 곳이며, 대승불교의 시작을 알린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유마경』의 주인공 유마 거사의 고향이기도 하다. 우리 일행은 원숭이왕이 부처님께 꿀을 봉양했다는 원숭이 연못과 최초의 비구니 사원이자 부처님께서 열반할 것을 선포한 대림정사 터를 참배했다. 대림정사 터에는 가장 완벽한 형태로 보존된 아소카 석주가 있었다.



바이살리 참배를 마치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가라로 향하였다. 쿠시나가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인도인 가이드가 열반당 내에 있는 부처님 열반상에 가사를 덮어 드리면 좋겠다 하여, 스승님들과 십시일반 돈을 모아 좋은 가사를 구입했다. 스승님들이 가사의 끝자락을 잡고 어깨 위로 올린 뒤 옴마니반메흠 진언을 독송하며 열반당으로 향하였다. 열반당에 도착하여 가사를 부처님께 덮어 드린 후 다 함께 반야심경을 독송하였다. 많은 스승님이 눈물을 보이셨다.



부처님의 열반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안 아난다가 문뜰에 기대여 슬피 울자, 부처님께서서는 아난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슬퍼하지 말라. 탄식하지 말라. 사랑스럽고 마음에 드는 모든 것과 헤어지기 마련이고, 없어지기 마련이고, 달라지기 마련이라고 그토록 말하지 않았던가.

아난다여! 태어났고, 존재했고, 형성된 것은 모두 부서지기 마련이거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 것을 두고 절대로 부서지지 말라 한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 스승은 계시지 않는다. 이제 스승의 가르침은 끝나 버렸다.’ 아난다여! 내가 가난한 뒤에는 내가 그대들에게 가르치고 천명한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아난다여! 그대들은 자신을 섬으로 삼고, 자신을 의지하여 머물고, 남을 의지하여 머물지 말



1. 쿠시나가라열반당
2. 열반당 참배모습
3. 대림정사 터의 아소카 석주

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에 의지하여 머물고, 다른 것에 의지하여 머물지 말라.

비구들이여, 참으로 그대들에게 당부하노니 형성된 것들은 소멸하기 마련이다. 방일하지 말고, 해야 할 바를 모두 성취하라. 이것이 여래의 마지막 유훈이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자 아누룻다와 아난다는 부처님의 유언대로 장례를 출가 수행자가 아닌 말라족의 재가신자들에게 맡겼다. 전륜성왕의 장례법에 따라 장엄하고, 향기로운 나무로 화장용 장작더미를 만들어 그 위에 부처님의 존체를 모셨다. 그 뒤 마하카사와 존자가 쿠시나가라로 와서 붓다의 존체에 예를 올린 뒤 불을 붙였다. 부처님의 장례 후 여러 나라에서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말라족은 자기들 땅에서 열반에 든 부처님의 사리를 분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도나라는 바라문의 중재로 사리를 여덟 나라에 공평하게 분배하였고, 도나는 사리함을 받았다. 그리고 뒤늦게 온 모리야인에게는 남은 재를 분배하였다. 분배된 사리는 각 나라의 도시 한복판에 세운 사리탑에 모셔져 불교 재가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참배를 마치고 열반당을 한 바퀴 돈 뒤 부처님 열반 당시 사리를 보관했던 스투파와 재분배된 사리를 보관한 스투파를 참배했다. 일정의 마지막으로 열반당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부처님 다비처에 세워진 람파르 스투파를 참배하였다.

부산 법성사 주교 남혜 정사



선밀겸수 유상선 육자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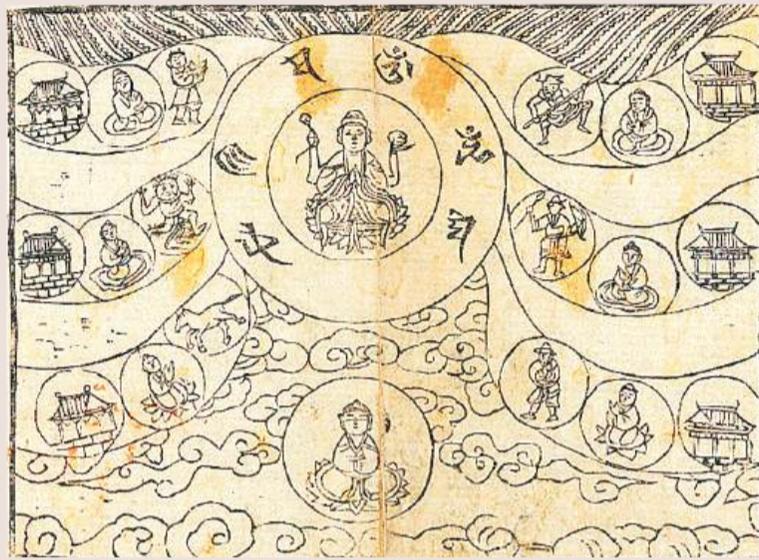
한국불교에서 임제선의 가풍을 제일로 삼는 남자에게 선밀겸수(禪密兼修)의 전통을 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인도 대승불교는 바라밀문과 진언문으로 나눈다. 이를 기준으로 삼으면 선을 통한 수행은 선문(禪門)이 된다.

선문의 제일의(第一義)는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 心行處滅)이다. 그런데 이를 빌미로 성철 스님의 아비라기도에 대해서도 그것이 선문(禪門)의 본의가 아니라는 비판을 들이대는 경우가 있다. 언어도단에 경도되어 말과 문자를 끊으면 관세음보살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선문에서 제불과 조사들을 꾸짖는 호기가 현대에도 질기게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한 골칫거리 화제는 석가모니 붓다께서 설한 연기법문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연기법 하나를 두고 무아와 실상이 공존하는 모순을 깨닫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인도불교는 대승불교 시대 반야교학과 나가르주나의 이제설, 디그나가와 다르마끼르띠의 인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흥역을 치른 후 비로소 진언문이 출현하였다.

조선 시대 선밀겸수를 자주 언급하는 것은 선문의 잘못된 경직이 불교를 가로막는 큰 축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선의 화두를 든다고 논리와 언어의 문을 닫으면, 옛말 그대로 공(空)을 맞는 수밖에 없다. 칠혹같이 가로막혀 물산 위에 부처의 얼굴이 나타나길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 책이 조선 시대 유행하고 또한 중요시된 이유는 언해본에 이어 1621년(광해군 13년) 가야사(伽倻寺)에서 목판본으로 출판되었을 뿐 아니라, 근대 용성 선사가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의 사비관음.

참조한 것으로 『백용성 대종사 총서』에 수록된 『육자영감대명왕경(六字靈感大明王經)』의 원본이기 때문이다. 책에는 용성 대선사가 1937년 『육자영감대명왕경』의 지송법과 경전의 공덕을 함께 실었는데, 원본인 『육자영감대명왕경』은 보이지 않지만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의 일부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돌아와서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의 내용은

1. 귀의삼보
2. 선정에 들기 전 전행
3. 출정 후 가집
4. 육자진언을 설한 인연
5. 관음 27반(般) 범문 내관(內觀)
 - ① 6자 종자가 육도 중생으로 태어날 씨앗을 파괴함.
 - ② 6자 종자가 육도문을 결단코 단음을 수념(修念)함.
 - ③ 6자 종자가 육도문에 태어나지 않음을 수념함.
 - ④ 육도 중생으로 태어날 씨앗을 파괴함.
 - ⑤ 6자 종자가 육도문을 결단코 단음을 수념함.
 - ⑥ 6자 종자가 육도문에 태어나는 고통을 파괴함을 수념함.
 - ⑦ 6자 종자가 육바라밀을 성취



사비관음

- 함으로 수념함.
- ⑧ 육도 중생으로 태어날 씨앗을 파괴함.
- ⑨ 6자 종자가 육도문을 결단코 단음을 수념함.
- ⑩ 6자 종자가 5불과 아미타불의 불국도에 태어남을 수념함.
- ⑪ 6자 종자가 5불과 아미타불의 불신(佛身)을 성취함을 수념함.
- ⑫ 6자 종자가 5불과 아미타불의 불국도에 태어나 성불함을 수념함.
- ⑬ 6자 종자로 인해 성불한 몸으로 불단에 앉아 십지보살의 근기인 대중 앞에서 설법함을 수념함.
- ⑭ 6자 종자로 인해 제석신으로 신변해 천신 앞에서 설법하는 등 나머지 오도의 중생 앞에서 설법함.
- ⑮ 6자 진언의 공덕과 위신력을

설함.

- ⑯ 스승을 모시는 8원칙과 대장경 및 진언은 모시는 방법을 설함.
- ⑰ 3불신진언
- ⑱ 계정해 진언 [이상 『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가야사(1621) 본]

이상 책의 내용에 담긴 것은 종자와 유상유가의 관상을 주로 한다. 책의 제목 가운데 ‘육자선정(六字禪定)’이 뜻하는 것은 밀교와 선문을 병기한 것으로 조선불교의 ‘선밀겸수’를 명확히 개시한 것이다. 언해본의 경우 책의 간기에는 1560년(嘉靖 39年)이라 하였기 때문에 언해본의 출판을 결심하기 이전 원본의 유행 시기는 더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특히 언해본으로 꾸민 것은 이 책이 널리 참조될 수 있도록 유통 의지가 강했던 것 같다.

주목할 것은 1621년 가야사본의 경우 책 앞면에 육도에 신변을 주재하는 관세음보살이 바로 사비관음이라는 점이다. 사비관음은 오늘날 티베트불교의 관음신앙 전통에서 모시는 주존이어서, 당시 동아시아의 정치 문화의 판도와 얽혀 더 연구할 부분이 필요하다.

조선 시대 선문에서 최상승의 범문으로 임제를 궁구하고 동시에 대기대용(大機大用)으로서 불보살의 원행과 불신의 구족을 관상한 선밀겸수의 수행을 보이는 실체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것이다. 더구나 당대 글 높은 지식인만 향유하지 않고 언문으로 기록해 불문의 승속이 함께 육자진언을 염송하여 조선 시대를 관통했으니 조선 선문의 선밀겸수와 육자진언의 시절 깊은 역사를 이제야 헤아리니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정성준 | 자유기고가



당상즉도 當相卽道 즉사이진 卽事而眞의 현실 긍정의 교리

종조 원정 대성사께서는 이 땅에 다시 밀교를 꽃 피우게 하셨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밀교의 중흥과 함께 초창기 진각종의 기틀을 다지셨고, 이후에는 의례와 수법을 정립한 정통밀교종인 총지종을 창종하셨습니다. 이 원고는 진각종 재직 당시 총인으로 계시면서 쓰신 내용이며, 현재 역삼동 원정기념관의 전시 유품 가운데 일부 원고입니다. 종조님의 숨결과 생전의 가르침을 유고를 통해 다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편집자 주

1. 밀교란 의식을 주로 한다. 의식이란 특정한 시기에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그것이 의식이요, 제전(祭典)이다. 또 특정한 장소가 일반의 장소와 구별되는 것도 종교의 특색이다. (예: 도량, 불단 등) 또 용구, 언어, 행동 등이 구별되어 일상생활과 달라서 시간, 공간, 물체, 동작, 언어 등 성스럽다 할 수 있다. 이에 상대하여 일상생활을 세속적이라고 하고 순(純)불교적인 생활을 출세간(出世間)적이라고 한다.

종교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비밀(秘密)적인 부분이 있다. 수행의 깊이 따라 그 비법을 수습 또는 체득하는 것이 본령으로 되어 있다. 여타

의 종교보다 불교에서 비법이 많고 그 대표적인 것이 밀교라고 하겠다.

불교를 대별하여 소승, 대승, 밀교의 셋을 들 수 있고 석가모니불의 교설(敎說)에서부터 시대에 따라 점차 발달하여 왔다고 하는 설도 있으나 실은 불타 자신의 교설 중에는 이 모든 것이 최초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제자들이 그 가운데서 부분별로 중점을 두어서 전해 왔으므로 어떠한 계통은 소승, 어떠한 계통은 대승, 어떠한 계통은 밀교라는 등 상이한 경향이 평행하여 발전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이나 파리어 성전 중에도 대승 내지 밀교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그러한 일례가 될 것이다.

2. 불교의 신통력에 대하여 불타시대에는 모든 종교의 성자들은 기적(奇蹟)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불교에도 불타 자신을 비롯하여 모든 성자 아라한들은 육신통(六神通)에 통달했다고 경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중에도 빈두로(賓頭盧)와 연화색니(蓮華色尼)의 신통력은 유명했다. 불타가 포교 활동을 개시할 당초에 가섭이 제자가 된 것은 신통력을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사위성에서도 불타의 신통력은 발군적이었다.

이상의 사실은 한역과 파리어 성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또 이러한 기사(記事)가 후세의 가필(加筆)이라고 단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신통력을 과시하여서는 안 된다는 불타의 지령(指令)이다.

어느 때 사위성에서 한 사람의 시민이 긴 죽간(竹竿) 끝에 값비싼 탁

발(托鉢)용 바루를 얹어놓고 “날아 올라 잡는 사람에게 그 바루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거기에는 불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종교의 수행자가 있었으나 빈두로가 신통력으로써 공중에 날아올라서 이것을 손으로 잡았다. 이 말을 들은 불타는 빈두로를 매우 꾸짖고 “대중이 보는 앞에서 신통력을 과시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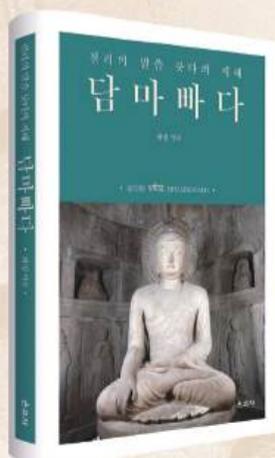
대저 신통력이란 번뇌가 없이 정신이 통일된 초능력적인 경지에서 가능한 것이며, 특히 밀교의 진언지송으로써 더욱 가능하지만[취물(取物), 축지(縮地) 등] 그러한 경지까지 정진이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밀교의 삼밀행은 반드시 그 진언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으므로, 지금 근기가 약한 수행자들 자신이 신통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그 주변의 사물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예: 총지종의 제반신통묘유(諸般神通妙有) 등]

자료제공=불교총지종 법장원

시대를 초월하고 종교를 뛰어넘어 전 인류에게 사랑 받는 '진리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이 원음에 가깝게,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남아 있는 경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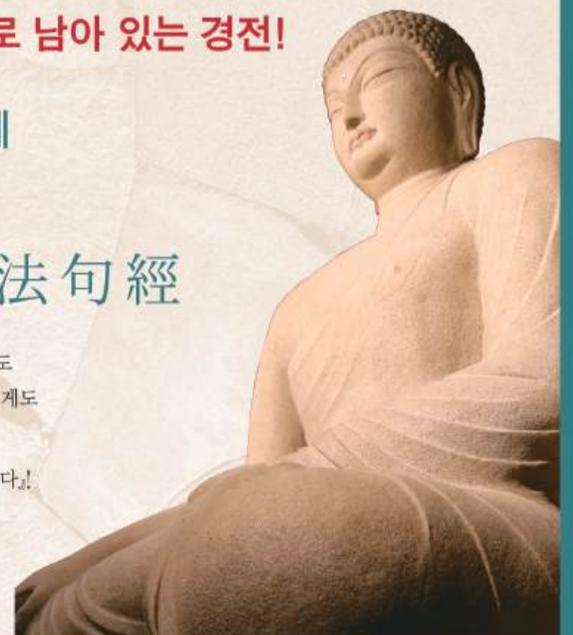
진리의 말씀 붓다의 지혜

담마빠다 法句經

가장 오래된 경전의 하나인 『법구경』의 팔리어 원본을 화령 정사가 쉽고도 간결한 현대어로 번역하였다. 출가 수행자는 물론 모든 불자와 일반인에게도 귀감이 되는 주옥같은 붓다의 말씀이 매 구절마다 심금을 울린다.

고해를 건너는 소중한 뗏목이며 사바세계를 비추는 등대와 같은 『담마빠다』! 이천만 불자들의 필독서!

화령 역주/국판/양장/192쪽/값 14,000원 법보시 문의: 화령 정사 010-9999-0407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의 의미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질문하셨습니다.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는 불교 신행(信行)과 실천의 현대적 의미를 설명할 때 자주 쓰이는 개념입니다. 하나씩 차분히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가 단순히 절에 가서 예배하거나 경전을 읽는 데 그치지 않고, 내 삶 전체에 스며들어 살아있는 실천이 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불교의 지혜, 자비, 청정한 계율을 가정, 직장, 사회생활 속에서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마음가짐
생명 존중(방생), 나눔과 봉사, 이웃 사랑의 실천
매일매일 깨어 있는 마음(정념)으로 수행하기

생활의 불교화

우리의 생활을 불교적 가치와 이상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의 이상적 가치(지혜, 자비, 평등, 연기적 삶)에 맞도록 생활의 방향과 방식을 불교적으로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즉, 불교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습관이나 삶의 태도를 성찰하고 개선하며, 불교적 삶의 원리에 맞게 생활 전반을 정화하고 향상하자는 의미입니다.

탐욕과 집착을 줄이고 소박하고 청정한 생활로 전환
경쟁과 이기심 중심의 삶을 협력과 나눔의 삶으로 변화
환경 보호, 생태적 삶을 실천
고통의 원인을 직시하고 지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태도

두 개념의 관계

이 두 표현은 비슷해 보이지만 강조점이 다릅니다.

구분	의미	초점
불교의 생활화	불교의 가르침을 내 삶 속에 스며들게 한다.	불교→생활 (불교의 원리를 생활에 적용)
생활의 불교화	내 생활을 불교의 가치에 맞게 변화시킨다.	생활→불교 (생활을 불교적 이상에 맞게 변혁)

결국 둘 다 불교적 이상과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현하자는 점에서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불교는 절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천이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 현대 불교에서 '불교의 생활화'와 '생활의 불교화'가 어떻게 강조되는지, 그리고 구체적 실천 사례와 관련 경전 구절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 불교에서의 강조점

현대 불교는 과거처럼 절 안의 신앙이나 의례 중심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교를 실천하는 신행(信行)을 매우 강조합니다. 이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강조됩니다.

불교의 생활화

부처님의 가르침(연기, 자비, 무아, 지혜)을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지혜로 실천하자는 운동. 단순한 의례 중심의 신앙을 넘어, 삶의 태도와 인간관계, 사회적 행동까지 불교 정신을 실현하자는 흐름. 생활 속 삼학(계·정·혜), 생활 속 팔정도 실천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생활의 불교화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환경 문제를 불교적 가치로 성찰하고 개선하려는 노력. 환경 운동, 생명 존중 운동, 평화 운동, 사회복지, 자원봉사 등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존재가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사상을 바탕으로, 나눔, 봉사, 환경보호 등의 사회참여형 불교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천 사례

실천 분야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가정과 일상	가족에게 자비심으로 대하기, 화내지 않고 경청하기, 욕심을 줄이는 삶	물질 중심 생활에서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
사회 활동	직장에서 올바른 언행, 정직, 청렴 실천	경쟁적·이기적 사회를 상생·협력 사회로 바꾸려는 실천
환경 운동	방생, 생명 존중, 음식물 절약, 쓰레기 줄이기	소비 중심 문화에서 생태 친화적 삶으로 전환
자원봉사	복지시설, 노인시설, 이웃 돕기 활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적 변화와 연대 실천

사찰의 연꽃 방생, 무료 급식소, 자원봉사단, 환경보호 법회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불교 복지재단 활동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한 생태 불교 운동

관련 경전 구절

“선한 말과 행동을 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향기처럼 세상에 퍼져나간다.” — 『법구경(法句經)』

“삼계는 모두 내 집이요, 중생은 모두 내 자식이다.” —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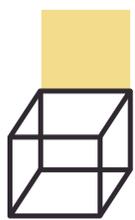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 『금강경(金剛經)』

현대 불교 지도자들의 강조

성철 스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 일상 그대로 진리이고 수행이다.

법정 스님: “무소유” — 탐욕을 줄이고 청빈과 나눔을 실천하자.

송산 스님: “오직 모를 뿐(Only don't know)” — 삶 속에서 깨어 있는 마음으로 수행하라.



총지로 여는삼 ⑦
진짜와 가짜

‘겨울이 된 뒤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

“의태(擬態) 1. 어떤 모양이나 동작을 본떠서 흉내 냄. 2. 동물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거나 사냥하기 위해서 모양이나 색깔이 주위와 비슷하게 되는 현상. 말벌과 흡사한 나방, 나뭇가지와 비슷한 대벌레, 해조와 비슷한 해마가 그 예이다.”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호랑나비 애벌레는 새의 배설물을 닮은 모습으로 포식자의 눈을 피하고, 난초사마귀는 꽃잎 모양으로 위장해 사냥합니다. 어떤 거미는 곤충이 걸린 것처럼 거미줄을 흔들어서 다른 거미를 사냥하고, 아프가니스탄 바위틈에 사는 살모사는 거미 모양의 꼬리를 흔들어서 새를 사냥합니다. 아메리카대륙에 사는 가짜산호뱀은 그 이름처럼 산호뱀의 무늬를 모방하는데, 산호뱀은 맹독을 지니고 있어 포식자라도 함부로 덤비지 못합니다.

꽃등에는 사나운 말벌의 모습을 흉내 내고, 어떤 벌레는 독이 있는 벌레의 무늬를 흉내 내서 포식자가 꺼리도록 합니다. 갑오징어 수컷 중에는 암컷의 무늬를 모방해 힘센 수컷이 모아놓은 암컷 무리에 들어가 자기 목적을 달성하는 놈이 있고, 문어는 주변의 자연물을 색깔뿐 아니라 질감까지 따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을 모방하는 식물도 있습니다. 리톱스라는 선인장은 잎 모양을 주변의 자갈처럼 만들어 초식동물을 피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 살고 있는 망치난초는 이 지역에 사는 타이니드말벌의 생리를 이용한 겁니다. 말벌은 땅속에 살다 꽃이 피는 계절에 맞추어 짝짓기하러 땅 위로 나오는데, 이때 암컷은 날개가 없어 수컷이 안고 꽃으로 날아가야 합니다. 암컷은 적당한 높이의 가지 끝에 앉아 페로몬으로 수컷을 부릅니다. 망치난초는 바로 이 암컷을 모방합니다. 암컷 말벌과 같은 크기와 비



슷한 색깔로, 암컷이 앉은 높이에 꽃대를 올려 수컷 말벌을 유혹합니다. 꽃의 페로몬은 암컷 말벌보다 더욱 강력하여 수컷 말벌이 이 난초에 먼저 매달리고, 이 과정에서 난초는 수분이라는 목적을 달성합니다.

남아프리카 케이프에 사는 ‘로도코마 카펜시스’, 또는 ‘케이프 레스티오’라고 불리는 벚과 식물 또한 동물을 모방한다고 합니다. 쇠똥구리는 영양의 배설물만 먹기 때문에 영양의 배설물을 찾아 땅에 묻고 거기에 알을 낳습니다. 이 식물의 열매는 영양 배설물의 모양과 생김새를 모방했는데, 냄새가 진짜보다 더 강력하다고 합니다. 쇠똥구리가 씨앗을 다 묻고 나서야 영양의 배설물을 찾는다니, 이 식물들이야말로 모방의 최고 기술자라 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방 기술 또한 종류가 많습니다. 화장이나 성형으로 꾸민 얼굴, 명품을 두른 차림새, 고급 자동차, 명함과 이력서에 나열한 갖가지 직함과 학력, 경력도 같은 부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역과 터미널 앞에서 소매치기당해 귀향하지 못한다고 차비와 밥값을 구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였고, 초인종을 누르고 절을 짓는다며 시주를 권하거나 조상께 정성드리는 기도를 권하

는 사람들도 그 실상을 알기 어렵습니다. 요즘은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발달로 모방도 더 빠르고 큰 규모로 진화한 듯합니다. 급한 일을 당했으니 돈이 필요하다는 자녀 사칭은 고전이고, 검찰과 경찰을 흉내 내거나 청첩장과 부고장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정보를 털고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해 부채를 만들어 떠넘기거나, 일정 기간 높은 이자를 주며 투자금을 늘린 뒤 소식을 끊는 등 갖은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아직 당신이 당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영리해서가 아니라, 차례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말이 당연하게 들릴 정도입니다.

상대를 속이려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야 성공할 수 있을 테니, 우리는 늘 사태를 겪고 나서야 뒤늦게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의 <세한도>에도 이런 감회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위직에 있을 때는 먼저 친분을 확인하고 과한 선물을 보내며 하는 일마다 칭송을 쏟아내던 사람들이 제주도 유배 후 선물은 고사하고 친분이 드러날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역만리 중국에서 사온 책과 종이를 보내온 제자에게 얼마나 뜨거웠을까 짐작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된 뒤

에야 소나무 잣나무가 시들지 않음을 안다[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라는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세상인심의 무쌍한 변화와 그와 더욱 대비되는 제자의 마음에 고마움을 표한 것이겠지요.

속이는 자들이 성공을 위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이겠지만, 속는 이들은 어떤 인연으로 수고와 피해를 당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법으로 보면 세상은 그물처럼 얽혀서 서로가 의지하며 살고,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자신이 지은 대로 받고 사는 것이 한치의 어긋남이 없습니다. 더 많은 이익을 보려다가 당했다면 이전의 악습을 멈추지 못한 어리석음 때문이라 여기고, 정신없이 얼떨결에 당한 일이라면 이전에 내가 행한 악업의 빛을 갚은 셈 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화살이야 피하지 못했더라도 뒤이어 날아드는 자책과 분노와 슬픔이라는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인욕과 하심으로, 온 세상을 평화와 자비 가득하게 볼 수 있는 총지종도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옴마니반메흠.

이상주 교도 | 자유기고가

진각종 천안심인당, 헌공불사 봉행

지하 1층에 지상 5층, 본존이운가지불사도



진각종(통리원장: 능원 정사)은 지난달 24일 오후 2시 천안심인당 (주교 원담 정사·천안시 동남구 버들로 97) 헌공불사 및 본존이운가지불사를 봉행했다.

이날 불사는 금강아사리 덕일 총인, 교법아사리 교육원장 정법 정사, 행법아사리 통리원장 능원 정사의 본존 제막 및 가지관정 작법에 이어 △강도 발원 △오대서원 및 유가삼밀 △경과보고 △통리원장 기념사 △축사 △주교 인사 △금강 회장 인사말 △심인합창단 축가 △공로패 전달 △반야심경 △진각종가 △회향 발원의 순으로 진행됐다.

통리원장 능원 정사는 기념사를 통해 “천안심인당이 새로운 터전을

찾아 자리잡은 이곳은 독립기념관이 위치한 애국충절의 고장이요, 천안삼거리로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유산이 있으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신흥 주거지역으로 성장하고 있는 곳”이라며 “누구나 찾아와서 마음공부를 하며 인격을 완성하는 복전이자, 종단의 교화를 뒷받침할 도량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각종은 2021년 10월 천안심인당 신축을 결정하고, 2023년 6월 지진불사, 2025년 1월 상량불사를 봉행했다. 천안심인당은 연면적 1,136.64㎡에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1~2층은 상가, 3층은 사택, 4층은 법당실, 5층 심인당이다.

천태종, 상반기 수계자 정진법회

습의교육·특강·법화삼매참의 등 진행



천태종(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6월 21일부터 22일까지 1박 2일간 단양 구인사에서 ‘불기 2569년 상반기 수계자 정진법회’를 봉행하였다.

정진법회는 첫날 오후 2시 광명전에서 열린 입제식을 시작으로 △습의교육 △저녁예불 △법화삼매참의 △관음정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22일 오전 8시 회향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정진법회는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금강계단에서 ‘삼귀의계(三歸依戒)’와 ‘신도오계(信徒五戒)’를 수지한 400여 천태불자들이 그간의 수행생활을 되돌아보고, 참회정진을 통해 지계(持戒) 의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고자 마련됐다.

교무부장 도웅 스님은 입제 범문을 통해 “계·정·혜 삼학(三學)이라는 튼튼하고 조화로운 세 다리가 있을 때 우리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궁극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중 정(定)과 혜(慧)는 계(戒)가 선행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계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 불자들이 오계(五戒)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자비, 공덕, 청정, 진실, 지혜의 종자를 마음에 심고 지키기 위함”이라며 “정진법회 기간 매 순간 수행에 집중하길 바라며,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다섯 가지 계율을 잘 지켜 맑고 밝고 깨끗한 길, 무한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천태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지사 교도 광고

혈액투석 · 줄기세포 · 암면역치료 · 자가진피주름재생술



연세숲내과

Yonsei Forest Clinic

원장 김 채 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10길 17 제이메디컬빌딩 5층

Tel. 02-496-0779 Fax. 02-496-0778

세대 간 따뜻한 어울림의 '한마당'

세곡키움센터, 이웃 어른들께 선물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록경 정사)이 운영하는 강남세곡다함께키움센터(센터장:김경희)는 지난달 18일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서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세대 간 교류 활동을 펼쳤다.

세곡다함께키움센터 이용 초등학생 아동들은 이날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손수 만든 '장명루 팔찌'와 전통 간식인 '모나카' 다과 세트를 정성스럽게 준비해 수서종합사회복지관 어르신들께 전달했다. 어르신들은 선물을 전하는 아이들에게 진심 어린 덕담을 전하며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김경희 센터장은 "이번 방문을 시

작으로 지역사회 내 다양한 세대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공동체의 정서적 연대를 강화하고, 아동들에게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해	탈	절		마	망	원	경
안			경	동	시	장	비
선	가	귀	감	멜	밤	마	실
	장		금	로		호	
효	자	손	부		올	가	미
	리		도	유		니	
이	세	사	도	세	자	허	
목	련	존	자	차		여	수
구		전	문	가			아
비		거	사	발		루	비

텃밭에서 '몸도 마음도 쑥쑥!'

석관실버센터, 농작물 수확 체험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록경 정사)이 운영하는 성북구립석관실버복지센터(센터장:나석원)는 지난달 24일, 하은어린이집, 래미안숲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텃밭 프로그램 '몸도 마음도 쑥쑥!'

을 진행했다.

'몸도 마음도 쑥쑥!'은 석관지니어스봉사단 소속 세대공감지니어스 어르신들이 직접 가꾼 텃밭에서 원아들과 함께 농작물을 수확하고 체험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다. 원아들은 직접 준비한 물뿌리개로 텃밭에 물을 주었고, 어르신들은 작물에 관해 설명하고 물 주는 방법을 알려주며 따뜻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잘 익은 방울토마토를 함께 수확하며, 농작물의 성장과 수확 과정을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나석원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축하합니다

총지사

5월 7일 성종윤 교도
득 손녀, 남연서 아기

◀ 33면 가로세로 정답

관성사 교도 광고



훈치과의원

대표원장 김 훈

진료시간

평 일	9시 30분 ~ 18시 30분
수 요 일	야간진료 20시 30분
토 요 일	9시 30분 ~ 14시
점 심 시 간	13시 ~ 14시



버스 이용시 산곡동 천주교회에서 하차

인천 부평구 세월천로16, 청천푸르지오 아파트 2차상가 204호
Tel. 032-516-2275

칭찬합시다 ②

붓 끝에 담은 신심, 금묵에 새긴 다라니

사경으로 불심 전하는 부산 구독자 신황섭 씨

얼마 전 편집실로 낮익고 반가운 손 글씨 편지가 도착했다. 그 안에는 먹물이 곱게 든 한지 위에 금빛으로 사경한 「신묘장구대다라니」가 <육합상>과 함께 모여져 있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부산의 신황섭 씨. 신 씨는 <총지신문>과 <위드다르마> 독자 중 요즘 시쳇말로 썬 애독자다. 독자 소감을 편지로 적어 잊지 않을 정도로 보내주기도 하고, 가로세로 총지문답 퀴즈도 척척 맞추어 정답을 보낼 정도다.

“바야흐로 신록의 계절입니다. 드물게 보이던 연두가 그 자취를 감추었고 오롯한 초록이 완성된 나뭇잎을 통해 시리도록 푸르다는 말이 실감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안부로 시작되는 편지는 이번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을 보내게 된 사연이 함께 들어 있었다.

“귀사에서 보내주셨던 <신묘장구대다라니 실답자 사경집>을 통해 연습한 것을 이렇게 먹물을

입힌 선지에 순금가루와 아교액을 배합한 금묵으로 사경해 보았습니다. 주로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한자로 금자장경(金字藏經)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시도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미 <광명진언>, <반야탑> 등을 써서 <독자 숨씨>에 선보인 적도 있었다. <반야탑>은 일자삼배(一字三拜)를 하며, 한 자 한 자 쌓아 올린 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편집실에서 퀴즈 정답자 경품으로 <신묘장구대다라니 실답자 사경집>을 보낸 적이 있었다. 신 씨는 이후 실답자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진언과 경을 정성으로 써왔다는 것이다.

“사경 수행이 가장 나답게 불법에 다가가는 길임을 깨닫고 정진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글의 완성도나 작품성보다 그 안에 담긴 마음, 기도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간직하시기를 바라며, 다라니

에 담긴 바 그대로 많은 이들이 관세음보살의 청정하고 성스러운 위신력에 의지하고 정진해서 큰 지혜를 이루기를 합장 발원합니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신 씨는 조계종 금강선원의 불교통신대학 과정을 수료하고 수행 중이며, 지난 편지에서는 총지종 종단에서 계를 받고 싶다는 뜻도 보내왔다. 편집실은 신황섭 씨의 정성 어린 사경 공양과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받으며, 한 명의 독자가 불법을 향해 걸어나는 그 여정에 깊은 감동과 응원을 보낸다.

붓끝에서 피어난 금빛 다라니는 단지 한 장의 사경이 아니라, 수행자의 삶과 서원의 표현이자, 모든 중생이 지혜와 자비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는 간절한 발원이다. 편집실은 앞으로도 신 씨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불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수행의 발걸음에 따뜻한 동행이 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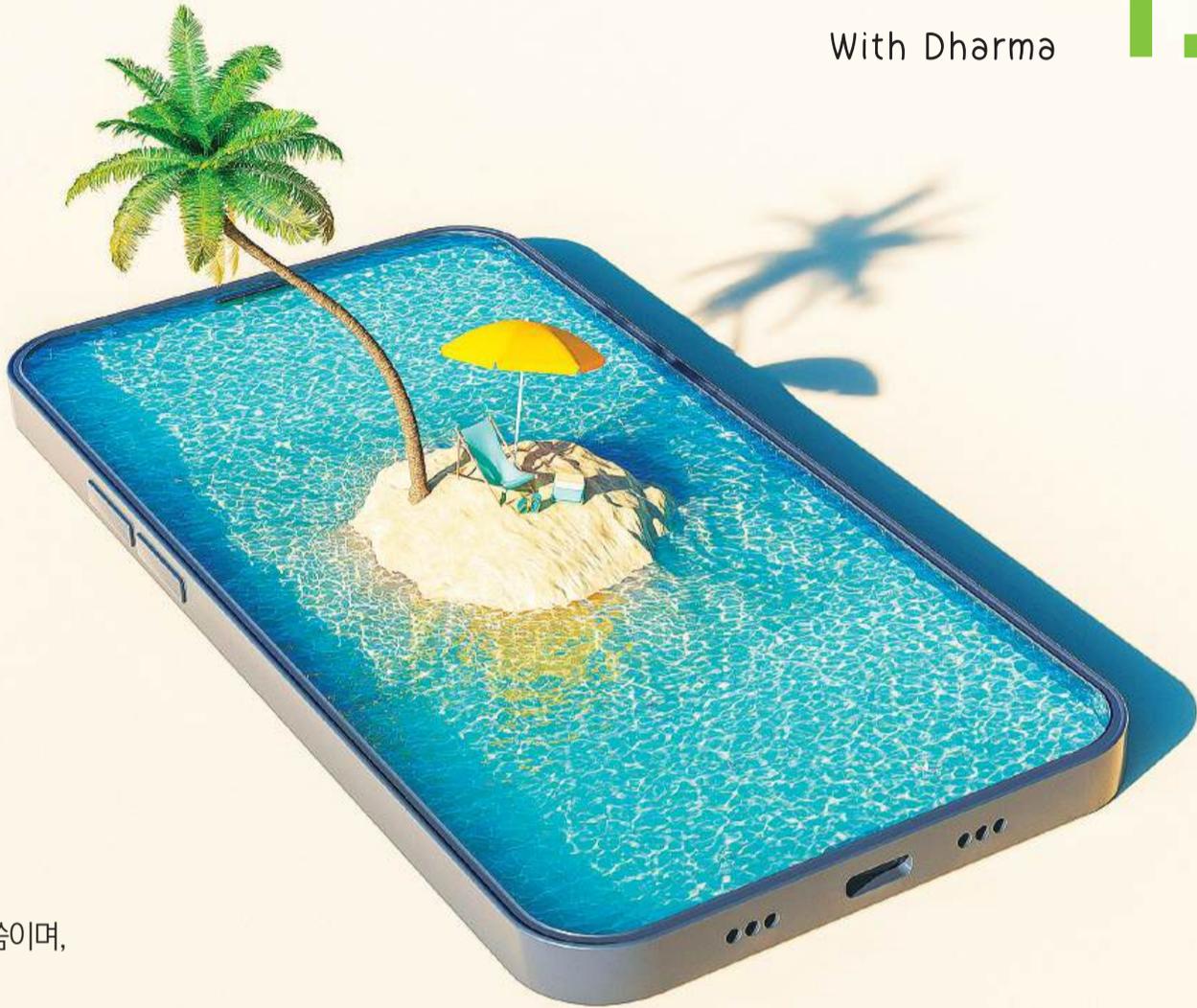
불교총지종 불교용품

본존다라니(금색) 13.5x17x3cm ₩ 50,000	본존다라니(엔틱) 13.5x17x3cm ₩ 40,000	본존다라니(백자) 14x19x1.5cm ₩ 10,000	가정본존다라니(대형) 46x27x2.5cm ₩ 29,000	호신다라니(지갑형) 4.2x5.8cm ₩ 3,000	보리수 108염주 ₩ 40,000	편백염주 108염주 ₩ 15,000	편보리수 108염주 ₩ 40,000

구입문의 | 통리원(02-552-1080) 또는 각 사원 불교총지종 통리원

위드 다르마 영원한 진리와 함께

With Dharma



다르마_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_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종조법설집

제 2장 수행편 P.123

교우 交友

신의信義로서 벼슬 사귀고
어진 사람을 질투하지 말며,
강한 자를 겁 없이 제어하고
약한 자에게 자비하여 침해하지 말라.



지장 스님의 향유 _24
아미타뵤(Amitābha)
_ 지장 스님



마음챙김 메커니즘 _26
명상과 유사과학
_ 임진수



문화유산해설 _29
금동삼존불입상
_ 편집실



지혜의 뜨락 _31
사람 중심의 사회
_ 편집실



살다보면 _32
복을 짓는 기도
_ 이옥경



내가 사랑한 동시 _38
조유로의 '그런 약이 있다면'
_ 신현득

우리는 어떻게 불법을 실천하는가 ②

보시는 남을 위한 길 동시에 자신을 위한 길



부처님께서 재가자에게 있어서 수행의 기본이 되는 것은 '사불괴정(四不壞淨)'을 갖추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사불괴정은 불·법·승(佛·法·僧)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혜를 갖추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베풀 것과 함께 언제나 지혜를 밝힐 것을 강조하시고, 그 지혜는 노력 정진에 의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재가불자는 이러한 부처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으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백정신심(白淨信心)이라고 합니다. 티 없이 깨끗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심의 바탕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되, 받아 지녀서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 우바새가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배우며 오게

를 지키는 것 이외에도 재가신자로서 보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일러 우바새가 보시를 완전히 갖춘 것이라고 합니까?”

“인색한 번뇌에 얽매이면 그 번뇌를 여의고 집을 떠나 살면서 걸림 없는 보시[解脫施], 부지런한 보시[勤施], 늘 하는 보시[常施]를 닦고 재물을 즐겨 베풀며 평등하게 보시하는 것을 일러 우바새가 보시를 완전히 갖춘 것이라 한다.”

재가신자의 실천 덕목 가운데에는 보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시는 다나(dāna)라고 하는데, 한문으로는 단나(檀那), 혹은 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재가 신도를 '보시하는 사람', 혹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단월(檀越; dāna-pati)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교를 위하여 보시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보시의 종류로는 보통 삼종시(三種施)라고 하여 재시(財施), 법시(法施), 무외시(無畏施)의 세 가지를 듭니다.

재시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재물로써 보시하는 것입니다. 법시라는 것은 불교의 가르침을 설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출가자가 일반인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뜻을 풀이해 주며, 불도로 이끌어 주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를 베푸는 것도 법시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누구한테든지 불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모두 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자오복경(賢者五福經)》이라는 경전에는 법시의 다섯 가지 공덕을 이렇게 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통이 있는 사람을 보고 현자(賢者)가 반드시 법을 설하여 내법을 믿게 하면, 그 인연으로 법을 설한 사람에게 다섯 가지 복덕이 있다.

첫째는 살생하는 이에게 살생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한 까닭에 장수하게 될 것이요,

둘째는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도적질하지 않게 하고 보시하도록 한 까닭에 크게 부유해질 것이요,

셋째는 법을 듣는 이가 온화한 안색으로 기쁜 마음을 내게 하는 까닭에 단정(端正)함을 얻을 것이요,

넷째는 법을 듣는 사람에게 불·법·승을 공경하여 받들도록 하는 까닭에 명예가 멀리 드러나며,

다섯째는 법을 듣는 이가 매우 깊은 법과 미묘한 지혜를 깨치도록 하는 까닭에 총명하고 큰 지혜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이 법시를 베풀면 많은 공덕이 있기 때문에 출가와 재가를 막론하고 법시를 베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장점을 말해 준다든가, 불교에 관한 좋은 글과 책을 쓰는 것, 불교의 공덕을 노래로 불러주는 것 등이 모두 법시를 베푸는 것입니다.

무외시라는 것은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의미입니다. 재난이나 기아, 질병, 전쟁, 폭력 등에 시달리는 모든 중생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을 무외시라고 합니다. 무외시는 인간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 생활의 전 분야에서 타인을 위한 모든 행위가 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중생 구제의 모든 행위가 보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이렇듯 반드시 물질적인 것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인 보시가 위주가 됩니다. 재가자의 일상생활은 늘 재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물질 위주의 시대가 되어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혈안이 되어, 심지어는 부모와 배우자까지 살해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살기 어려워진 것도 모두 베푸는 마음 없이 가지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것만 가져도 세상이 이렇지는 않을 것인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므로 한정된 공간에서 한정된 물자를 놓고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많은 것을 가지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가 바라는 것이 충족되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전세 살면서 자기 집 한 채 가지

는 것이 소원이다가 조그만 집이라도 한 채 마련하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그 행복감은 잠시뿐입니다. 곧 돌아서서 더 큰 집을 못 가져서 안달입니다. 우리 범부 중생은 평생 이려고 사느라 잠시도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남에게 손가락질받아 가면 서도 이를 악물고, 돈 벌어서는 죽을 때 자식들 싸움만 시켜 놓고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결코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베푸는 마음으로 살면, 그 순간 행복이 찾아옵니다. 세계 최대의 갑부라고 자부하던 록펠러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베푸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순간 행복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시에 힘쓰게 되면 탐심을 다스리게 되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탐심으로 인해서 괴롭고 화가 납니다. 이것이 번뇌입니다. 보시는 탐심을 다스리기 위해 욕구를 충족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오히려 재물을 베푸므로써 탐심을 없애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어지면 괴롭고 화날 일도 없습니다.

시론(施論), 계론(戒論), 생천론(生天論)의 삼론에서도 보듯이 보시는 재가자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수행이며, 불도에 입문하는 첫걸음에 해당합니다. 부처님께서서는 어리석은 재가자를 불도로 입문시킬 때 먼저 사람들에게 보시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다음 계행을 잘 지키면 누구나 좋은 곳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삼론이라는 것입니다.

인색하고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어떠한 선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인색하고 욕심내는 마음을 버릴 때 집착에서 벗어나고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남을 위하는 길이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보시는 부처

님 당시부터도 권장되는 재가자의 덕목이었지만, 대승불교에서 바라밀행을 강조할 때 보시바라밀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덕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베푸는 마음이 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푸는 마음을 지녀야만 탐욕에서 오는 번뇌를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켜 훔치거나 빼앗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망치기 때문에 탐내는 마음을 거꾸로 돌려 베푸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베풀고 힘이 센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남을 도울 수 있으며, 그도 저도 할 수 없는 지경이라면 남에게 힘이 되는 말 한마디나 미소 한 자락으로도 보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편집실



경전에서 찾은 지혜

두 가지 승리

부처님께서 왕사성 교외에 있는 죽림정사에 계실 때였습니다. 이때에는 많은 비구가 이미 출가해 있었고, 마가다국의 많은 사람이 부처님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법문을 듣고 출가했습니다.

어느 날 바라문 한 사람이 죽림정사에 와서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설했습니다.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출가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바라문은 인도의 최고 계급으로서 인도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라문 종족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상당히 분했던 모양입니다. 이 바라문이 부처님을 향해서 한참 욕하다가 제풀에 잠잠해졌을 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며, 그대의 집에도 가끔 손님이 방문할 것이다.”

“물론이다. 고타마여.”

“그러면 그대는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할 것이다.”

“물론이다. 고타마여.”

“바라문이며, 그때 그 손님이 음식을 들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

이 되겠느냐?”

“그야 나의 것이 되겠지.”

그러자 부처님께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문이며, 그대는 지금 나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 욕설은 그대의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바라문이며, 주인이 대접했는데도 손님이 식사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대의 욕설을 나는 받지 않고 그대에게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나서 부처님께서서는 이런 게

송을 읊으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 되갚음은 어리석은 일이다.

화내는 자에게 화내지 않는 자는 두 가지 승리를 얻는다.

타인의 성냄을 알아 자신을 정념으로 가라앉히는 자는

자신에게도 승리하고 남에게도 승리한다.

이렇게 타이르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께 감복하고 출가해서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함경(阿含經)』

지장스님의 향유 | **아미타불** Amitābha

지장스님의 향유

‘스스로 자신의 지혜에 의지한다’



극락에서 설법하는 아미타불. 국립중앙박물관. 공공누리저작물

사찰에서 진행되는 의식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齋) 의식입니다. 흔히 49재나 천도재로 알려졌지요. 재사라고 편하게 부르는데, 형태는 비슷해 보이거나 집에서 유교식으로 지내는 제사(祭祀)와는 글자가 다릅니다. 재(齋)는 불공을 드리거나 법문을 들려준다는 의미입니다.

재 의식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염불을 하는데, 이때는 ‘나무아미타불’을 합니다. ‘나무(南無)’는 고대 인도말인 ‘namas’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뜻은 ‘의지한다’, ‘받들어 모신다’, ‘귀의한다’입니다. 아미타(阿彌陀)라는 글자 또한 ‘amitābha’ 혹은 ‘amitāyus’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입니다.

산스크리트어 ‘아미타보(Amitābha)’는 ‘amita’와 ‘ābhā’라는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mita’는 ‘헤아리다’, ‘측정하다’라는 뜻이고, ‘아미타(amita)’는 ‘한정됨이 없는’, ‘경계가 없는’,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아보(ābhā)’는 ‘빛’, ‘광명’이라는 뜻입니다. 두 단어를 합치면 ‘한정됨이 없는 광명’, 혹은 ‘헤아릴 수 없는 광명’이라는 뜻이 됩니

다. ‘amitāyus’는 ‘한이 없는’이라는 뜻의 ‘amita’와 ‘수명’이라는 뜻의 ‘āyus’의 합성어입니다. 이 단어로 뜻을 풀이하면 ‘헤아릴 수 없는 수명’을 의미합니다.

‘나무아미타불’은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혹은 한량없는 광명과 같은 어떤 존재를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미타 신앙은 초기에 파키스탄 지방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아마도 이집트나 중동의 태양신 신앙이 전래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미타부처가 있는 곳이 서방세계이므로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죽어서도 자신의 존재가 괴롭지 않고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이 이런 개념을 만들고, 그것에서 위안을 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정성과 염원을 담아내는 좋은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아미타보’는 어떤 인격체, 혹은 세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인식의 한 형태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보(ābhā)’는 ‘빛’, ‘광명’이라는 뜻이지

만,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는 상태를 무명(無明)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인식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제한되어 있고 인식론적으로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세상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고 알지 못합니다. 주관적이고 편협되게, 그리고 왜곡해서 인식합니다. 이런 인식의 모순 때문에 결국 착각과 집착, 괴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간의 기본 감정인 희로애락의 뿌리 또한 인식의 문제에 있습니다. 좋음과 싫어함, 취함과 상실, 버림 등의 역학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감정의 동요일 뿐이지요.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정의 동요 속에 흔들리다 살다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흔들림에 의해 생기는 멀미가 비탄이고 고뇌입니다.

구름은 수많은 조건이 만나 만들어지는 일시적 상황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인식적으로 마치 구름이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몸속의 모든 세포도, 마음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작용하고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뿐입니다. 살아 있기 위해 매 순간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며, 안정된 상태를 찾아 반복적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식의 습관이 워낙 강력히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곡된 인식의 결과로 정신적 신체

적 반응이 뒤따르는데, 이 과정은 거의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사랑, 행복, 미움, 괴로움도 이 과정에 해당합니다. 만약 사랑, 행복, 미움, 괴로움도 인식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현상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흔들림은 현저히 줄 것입니다. 처음 인식이 일어날 때부터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뒤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괴로움의 근원은 바로 여기, 즉 제한되고 왜곡된 인식(無明)에 있습니다. 아미타보는 제한되고 왜곡된 인식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인식이 고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인식의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나무’는 ‘의지한다’는 뜻이었는데, 결국 ‘스스로 자신의 지혜에 의지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한 글자씩 염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새기면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는 연습이 됩니다. 이 방법은 사후세계나 망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행법입니다. 창의적 사고에도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요. 인식이 자유로워지면 현실의 삶에서 분명 불안과 갈망, 괴로움, 삶의 무게, 멀미 등이 줄어들 것입니다. 또 사후세상이 존재하든 존재하지 않든 상관없어지겠지요.

재(齋) 의식은 돌아가신 분에게 법문을 들려 주거나 망자를 대신하여 불공을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왕이면 자신과 망자가 좀 더 지혜로워지는 내용과 방식으로 수행한다면 공덕도 훨씬 커지고 진정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장 스님

청주 용화사 교육원장

담마빠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면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고
 깨어 있지 못하면 죽음의 길로 들어선다
 깨어 있는 이는 죽음을 초월하고
 깨어 있지 못하면 죽은 것과 같다

이러한 이치 밝게 알아서
 지혜로운 이는 항상 깨어 있으니
 그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마침내 성인의 경지 얻게 되리라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펴서 괴로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다시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잠 속에서 악몽을 꾸며 늘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깨고 나면 모든 게 악몽이었다는 것을 알지만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기 때문에 실체도 없는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깨어 있으라!”
 이것은 부처님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화령 정사
 철학박사
 법천사 주교

따뜻한 하루

조화를 이루면서 살자

오래전 시골 장터에서
 오르골 하나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맑고 고운 소리가 들려와
 소리를 따라가 보니 한 사람이
 오르골을 팔고 있었습니다.
 아기 손바닥만 한 작은 크기였지만,
 그 안에서는 샘물처럼 맑은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으면 언제든
 다시 음악을 들을 수 있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 망설임 없이
 하나를 골랐습니다.

조심스레 태엽을 돌리자
 작은 쇠 원통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움직임에 맞춰 고운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상자에서
 이토록 아름다운 소리가 날까?’

자세히 보니 안쪽에 원통형 실린더가 있고
 그 표면에는 크고 작은 뾰족한 돌기들이
 불규칙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태엽을 돌리자, 실린더와 함께 돌기가 회전하며
 얇은 금속판을 하나씩 툭툭 건드릴 때마다
 맑은 소리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렇게 돌기 하나하나가 음표가 되고,
 금속판은 그 음을 받아 조심스레 연주하는
 악기가 되어 하나의 곡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모양새의 돌기와 빈틈이
 엇갈리듯 이어지며
 조용히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은 늘 매끄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날은 뾰족한 돌기처럼 날카롭고,
 어떤 날은 빈틈처럼 텅 빈 듯 하지만,
 그 다름과 차이들이 모여 서로를 채우고
 결국 우리만의 고유한 음악이 되어 흐른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음악의 조용한 울림 속에서
 삶의 진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따뜻한 감성편지 2025. 6. 18〉

명상과 유사과학 - 거짓으로 증명하는 방법

문득 마음이 고요해졌음을, 문득 마음이 성장했음을 아는 것



유사과학에 빠지는 것은 명상의 목적을 잃었기 때문이다.

명상의 목적이 괴로움에서 벗어남이라면, 굳이 자신의 수준을 비교·검증해야 할까?

앞서 명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연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명상을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명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검증된 연구 기관이 객관적인 방식으로 명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재검증을 통해 실험 오류를 최소화하면 명상에 관한 객관적인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명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유사과학이란

진짜 문제는 유사과학(類似科學,

Pseudo-science)이다.

유사과학은 의사과학(擬似科學) 또는 사이비 과학(似而非科學)이라고 한다. 유사과학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또는 증명과 일절 관계 없거나, 관계없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면서도 과학적인 것처럼 주장하거나 수용하는 대상, 또는 이러한 대상의 수용을 유도하는 이론이나 주장을 말한다.

이는 과학의 복잡성과 대중적 이해도 사이의 괴리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상품이나 신념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주입하려는 목적의 지적 사기에 해당한다. 대중적으로는 과학적 연구의 산물로 소비된다는 점에서

‘본래부터 과학이 아닌 것’인 비과학과는 구별되며, 그밖에 병적 과학 혹은, 쓰레기 과학이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병적 과학은 어빙 랭뮤어가 제안한 용어로, 과학자가 자기도 모르게 편향이나 주관적 실수가 발생하였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활동을 말한다. 쓰레기 과학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결과를 왜곡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출처=나무위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유사과학의 대표적인 예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의 양파실험, 게르마늄 육각수, 음이온 라돈침대’ 등이다. 이런 유사과학의 특징을 다시 말하면, 위에서 정의한 것처럼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수많은 실험 결과에 대한 자료나 그런 실험 결과가 학술지에 게재된 것처럼 꾸민다.

또한 외국의 유명한 교수가 인정했다는 식의 인터뷰 내용과 사진이 첨부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검증된 경우가 거의 없고, 학술지 역시 출처를 알 수 없다. 유명하다는 교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일종의 사기인 것이다. 또한 유사과학은 결과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는 과학적인 근거를 끼워서 맞추는 방식으로 효과를 과장한다.

유사과학과 명상

명상하는 사람의 종류는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신비한 체험을 추구한다. 그런데 어떤 명상을 하더라도 이런 유사과학에 빠지는 경우가 꽤 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명상을 추구하는 사람은 과학이라는 이름에 속아서 유사과학에 빠지고, 신비주의자는 자신이 겪은 신비함을 과학으로 증명하고 싶어서 이런 유사과학을 신봉한다.

명상법은 어떤 것이든 간에 주관적 체험을 기본으로 할 수밖에 없다. 명상이란 것은 주관적으로 느끼는 괴로움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객관적인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느끼는 괴로움의 정도는 자신이 느낄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명상하게 되면 그동안 살면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주관적이지 않은 경험이란 걸 알기 위해서, 혹은 이런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기 위해서 객관적인 해답을 찾으려고 한다.

객관화 과정의 문제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을 객관화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명상을 포함한 세상의 그

어떤 분야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룬 후에는 반드시 그 분야에 대한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진다는 점이다. 명상의 경우, 괴로움이 좀 약해진 것 같고 삶에 자신감도 생기면, 자신에게 뿌듯한 마음이 생겨서 '새로운 자아'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다른 하나는 자신의 수준을 과신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새로운 자아'와 연결되는데, 명상하면서 초발심에 생기기 쉬운 작은 체험과 경험을 꽤 큰 체험과 경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인정욕구를 넘어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의 수준을 찾아 헤매다 보면 정통적인 책, 특히 고전은 어렵게 느껴지고 무슨 말인지 알기 쉽지 않다. 사실 명상에 대한 이론이 실려 있는 고전(대부분 불교경전임)은 현대어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수많은 세월 동안 검증된 이론이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아 보면, 쉬운 이론에 현혹되기 쉽고 자신에 맞는 내용에 심취하기 쉽다. 이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유사과학에 자신을 맞춰나가는 것이다.

유사과학은 과학과 신비주의의 중간쯤에 걸쳐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것 같아 보이는 논리와 이론, 그리고 자신의 체험에 대한 환상을 완성하기 위한 재료로서, 유사과학은 적당한 위치에 놓여있다.

유사과학의 특수성과 비합리성

2000년대 초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열풍을 일으킨 적이 있다. 많은 사람이 추종했고 열광했다. 하지만 얼마간 시간이 흐르자, 근거 없는 유사과학임이 드러났다. 문제는 이 기간에 열광했던 사람 역시 방향을 잃었다는 것이다. 물론 과학적인 검증이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이 책을 쓴 저자의 말처럼 물이라는 물질도 사람의 마음을 실으면 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도나 명상의 효과일 수도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 관찰은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특정 종교단체에서는 가능하고 일반 집단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결과의 보편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명상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명상을 통해 특수성과 비합리성을 주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이 달라져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실험 관찰은 보편성을 가질 수 없다. 특정 종교단체에서는 가능하고 일반 집단에서는 불가능하다면, 결과의 보편성과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종교는 특수성과 비합리성이 혼재하지만, 명상은 보편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명상을 통해 특수성과 비합리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종교화되어 가는 명상일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방향성은 지양해야 한다.

유사과학에 빠지는 이유

유사과학에 빠지는 것은 명상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긴다. 명상의 목적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자신의 수준을 비교해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할지 싶다.

명상을 계속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괴로움에서 벗어났는지 아는 것은 쉽지 않다. 명상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문득 마음이 전보다 고요해졌음을 느끼고, 문득 마음이 성장했음을 알게 된다. 명상은 객관적이고 기계적인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주관적이고 모호한 상태가 지속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

하지만 사람들은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고 싶어 하고, 자신의 존재성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명상은 다른 사람과 수준을 겨루거나 자격증을 따는 것이 아니다.

구정(九鼎) 선사가 술을 아홉 번 고쳐 걸고 깨달았다는 일화는 훌륭한 스승과 좋은 제자 사이에 어떻게 마음공부가 이루어지는지 보여준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스승이 제자를 기다려 주면서, 제자 스스로 자신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스승이 거의 없는 시기이다. 이렇게 올바른 스승이 없는 시기엔 송산 스님의 말씀인 '오직 모를 뿐'이라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지 일과처럼 명상을 통해 앞으로 나아갈 뿐, 자신의 존재는 잊어야 한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며 살다가,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문득 변화되고 발전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런 것이 명상을 잘 실천해 오는 것이 아닐까?

임진수

명상지도자협회 명상전문지도자
메디테이션 봄 명상센터 대표

고통을 견뎌낸 성공

고
전
속
으
로“마지막에 성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견딘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

고통을 참고 견뎌내야 즐거운 시절이 온다.
공부를 조금 하다가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은 성공하기 어렵다.

忍辛耐苦, 方有快活時節. 乍做工夫, 不耐辛苦而止者, 難乎有成.
인신내고, 방유쾌활시절. 사주공부, 불내신고이지자, 난호유성.

- 유범휴(柳範休, 1744~1823), <호곡집(壺谷集)> 권9, '졸수잡록(拙修雜錄)'

‘고생 끝에 낙(樂)이 온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말도 그렇다.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희망의 메시지로 읽어 왔는데, 인생의 낙을 맞이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고생을 겪어봐야 한다는 의미로도 들린다. 고생을 해봐야 그보다 나아진 상황이 좋은 것임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터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생이라는 것은 장밋빛 미래의 가치를 높여주는 선행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고통스럽게 되는 이유를 옛사람은 이런 정도로 녹록하게 여기지 않았다. 고통은 나의 삶에 왜 찾아오는 것인가? 맹자(孟子)는 이렇게 말했다.

“하늘이 장차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하매 반드시 먼저 그 심지(心志)를 고통스럽게 하고 육체를 굶주리게 하며 그 몸을 궁핍하게 하여, 그가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여 혼란스럽게 하나니, 이는 그의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성질을 참아내게 하여, 그가 능하지 못했던 것을 더욱 더 잘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해서이다.”

‘하늘이시여! 왜 나를 이토록 힘들게 하시오?’라는 생각이 들 때, 맹자의 이 말을 되뇌며 마음을 다스려 볼 일이다. ‘지금 나의 심신이 이리 쓰러진 건 내가 이 상황을 이겨냈을 때

“
포기하지 않고
정진한 사람에게
실패는 새로운
자양분으로 축적돼
목표를 달성한다
”

나에게 큰일을 맡기려고 해서이겠지’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부단히 노력해야 할 뿐이다. 고통이 나를 단련시켜 성공으로 이끈다.

18·19세기의 퇴계학과 학자 유범휴

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해야만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고통의 시간은 대부분 짧지 않다. 긴 세월 동안 공부하면 몸과 마음의 상처가 켜켜이 쌓일 수 있다. 시간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고 성과가 마음먹은 대로 나오지 않으면 자존감마저 떨어져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정진한 사람에게 실패가 외려 자양분으로 축적되어 종국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벼랑 끝에 섰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맹자의 교훈을 곱씹으며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하리라.

용재(庸齋) 김근행(金謹行)은 사양재(四養齋) 강호보(姜浩溥)에게 보낸 편지에서 “총명하고 재주 있는 것

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성취하는 것은 오랫동안 견딘 사람이라야 할 수 있다”라는 말을 전한 바 있다. 김근행의 스승이자 강호보의 종손(從孫)인 비수재(賁需齋) 강규환(姜奎煥)이 한 말이다. ‘미성재구(美成在久)’를 다시 가슴 속에 품어보자!

우둔하기로 유명했던 백곡(栢谷) 김득신(金得臣)도 억만재(億萬齋)에서 부단히 절차탁마하여 저명한 문학자로 거듭날 수 있었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1만 시간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중용(中庸)>은 “타인의 백배만큼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다. ‘1만 시간의 법칙’과 ‘100배 더 노력하기’는 오랜 시간 노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진리가古今에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김 중 민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BK 동아시아 고전학 미래인재 교육연구팀

정지원 글자가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

손바닥 반 정도 크기의 이 불상은 어디든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작은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삼국시대 불상 중에는 이처럼 이동이 가능한 작은 불상이 꽤 남아 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자를 통해, 우리는 이 불상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남편이 발원(發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상을 품에 넣어 다니던 첫 주인은 바로 그 남편이었겠지요. 지금부터 국립부여박물관에 전시 중인 이 작은 불상에 담긴 여러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은 불상에 새겨진 이야기

정지원이 죽은 아내(鄭智遠爲亡妻) 조사를 위해 금상을 공경되게 조성하오니(趙思敬造金像)

빨리 삼도를 떠나게 해 주소서(牟離三)

여기서 삼도는 죽은 뒤 가게 되는 여섯 길[六道] 중 악한 일을 저지른 자가 가는 세 길[三道]인 지옥도, 축생도, 아귀도를 의미합니다. 남편 '정지원'은 아내 '조사'가 죽은 뒤 좋은 곳에 이르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불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불상은 명문(銘文)의 '금상(金像)'이라는 말처럼 표면이 금빛을 띠도록 청동에 금을 도금하였습니다. 신앙의 대상인 불상 표면에 금을 도금하는 것은 부처의 특징적인 모습을 설명한 32길상(吉相) 80종호(種好)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처가 평범한 인간과는 구별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믿음에 기반한 것으로, 이 중 '금상'은 32길상 중 하나인 '부처의 몸은 미묘한 금색으로 빛난다[金色相]'는 특징을 표현한 것입니다. 32길상을 설명한 주요 경전인 『대지도론(大智度論)』에서는 “어떠한 금색



〈'정지원' 글자가 새겨진 금동삼존불입상〉, 1919년 부여 부소산성 발견, 높이 8.5cm, 보물, M335-2, 국립중앙박물관 선유미 큐레이터 추천, 공공누리 저작물.

도 부처의 몸에서 나는 금색에 비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불상에 표현된 금빛은 부처를 존엄하고 특별한 존재로 장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나의 광배, 세 분의 불상

이 불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32길상을 또 찾아볼까요? 그것은 '부처의 몸에서는 1장(丈)의 빛이 빛나고, 부처는 그 빛 속에 있다[丈光相]'는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그것은 바로 부처에게서 발하는 빛을 표현한 광배(光背)입니다. 이 불상에는 모두 3개의 광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불상의 머리 주변에 동그랗게 표현된 것이 머리 전체에서 발하는 빛인 두광(頭光), 불상의 몸 주변에 길쭉하게 표현된 것이 몸에서 발하는 빛인 신광(身光), 그리고 두광과 신광 구별 없이 부처의 몸 뒤로 온몸에서 발하는 빛을 표현한 것이 바로 거신광(擧身光)입니다.

하나의 광배를 배경으로 삼존불을 배치한 상을 일광삼존불이라고 합니

다. 일광삼존불은 중국에서 비롯되어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까지 한반도에서 형식이 확립되며 크게 유행하였고, 일본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간송미술관 소장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563년, 옛 지정번호 국보 제72호)이나 호암미술관 소장 <신묘명금동삼존불입상>(571년, 옛 지정번호 국보 제85호) 등도 이 시기에 제작된 것입니다. 특히 중국 산둥성에서 출토된 여러 일광삼존불은 우리나라 6세기 상과 비슷한 점이 많아, 당시 중국에서 한반도로 불교문화가 전해질 때 산둥성 지역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가운데 불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옷은 양쪽 어깨가 드러나는 부분 없이 잘 덮여 있는데[通肩], 이러한 대의를 입고 서 있는 삼국시대 부처님은 대부분 이 상에서처럼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어 올린 시무외인(施無畏印, 두려움을 없애주는 의미의 손갓춤)을, 왼손은 아래로 내려뜨린 여원인(與願印, 소원하는

세상을 떠난 아내를 위해 만든 부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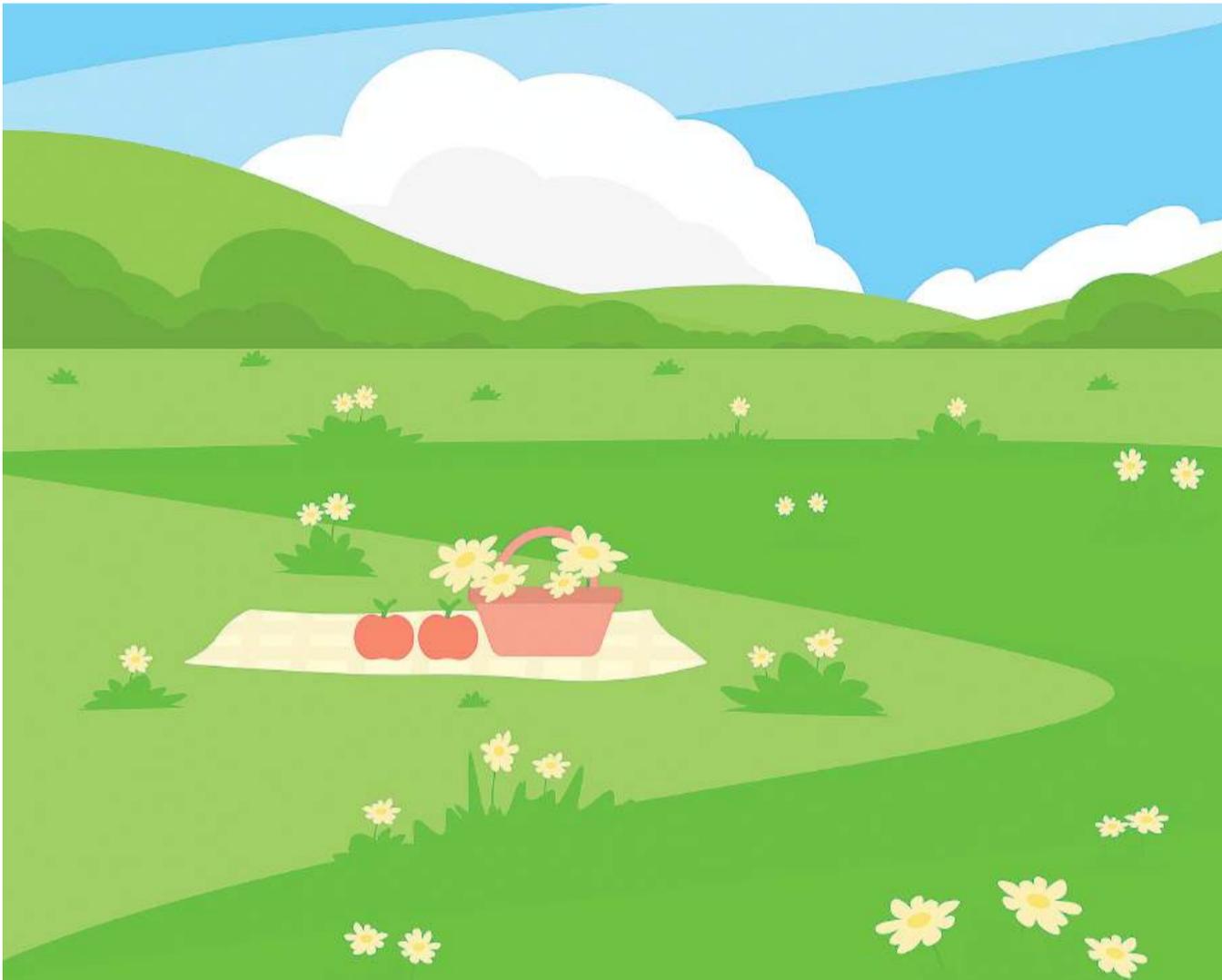
바를 들어준다는 의미의 손갓춤)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왼쪽 협시보살은 상당 부분 없어졌지만, 남아 있는 불상과 보살상은 몸에 비해 큰 머리와 손, 좌우대칭의 형태 등 초기 불상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히 가운데 불상에서 보이듯 옷자락이 몸 옆으로 약간 뻗는다거나, 옷의 한쪽 끝단을 가슴을 가로질러 왼손 위로 걸치는 등의 표현은 6세기 삼국시대 불상에서 보이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담아

정지원과 그의 아내 조사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큰 광배를 배경으로 삼존불을 배치한 금동삼존불이라는 점, 불상의 얼굴과 몸, 옷의 표현 등으로 보아 6세기 경 만들어진 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 정도입니다. 그러니 정지원과 그의 아내 조사 역시 이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소산성 송월대에서 발견된 이 삼존불은 백제의 옛 수도인 부여에서 출토되었지만, 사비 시기 백제에서는 정씨(鄭氏)나 조씨(趙氏)라는 성씨를 사용하지 않아 외국에서 가져온 불상이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변함없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뒤에도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이 이 작은 불상에 담겨 있다는 것과 이 상이 당시 사람들의 불교적인 내세 신앙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삼존불에도 돌아가신 스승님, 부모님 등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불상을 제작했다는 명문이 남아 있어, 개인적인 마음을 담은 작은 불상의 제작이 종종 이루어졌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공부
첫 번째 스텝우리 마음의 순도^{純度}가
세상의 순도다

뜨락에 복수초가 피었다.
눈이 시도록 셋노랗다.
열어 있던 땅속에서 솟아난 첫 번째 꽃이 어찌하여 이리도 강렬할꼬.
이 꽃은, 이 존재는 복수초가 아니다.
존재계의 그 모두가 강림하여 피워낸 신비다.

우리 태양계가, 태양의 아이들인 일곱 행성이, 그리고 달님까지 한 치 어긋남이 없이 협력한 공덕이다.

어디 우리 태양계뿐이리.

우리 은하계에는 2000억 개의 항성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우주에는 또한 2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네 태양계와 같은 항성이 400해(4000000000000000000000)개 모인 곳이 우리 우주란다.

사람의 상상력으로 도무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아득한 이 우주가 138억 년 동안 질서정연하게 흘러오면서 평화로이 이 꽃을 피운 것이다.

그러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이 무한 우주는 한결같이 고요한데 어찌하여 평범하다 못해 존재감마저 희미한 이 돌 부스러기 위의 인간세는 이리도 복잡스러운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등등 인간세의 모든 분야가 한시도 조용하지 않다.

강원도 산골까지 도달하는 것이 이르려겨늘, 시정(市井)의 현장에서 매순간 벌어지는 일들이야 오죽하랴 싶다.

우주의 평화 에너지가 우리 지구만 피해서 흐르고 있기라도 한단 말인가.

그런데 스승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복잡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네 마음이다.”

세상이 복잡해서 복잡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복잡하게 느껴진다고 하신다.

우주를 단순하고 변함없이 끌고 오는 하나의 질서, 그것은 바로 연기(緣起)다.

하늘도 이 세상도 우리 마음도 모두 연기적으로, 인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인을 살피지 않고 과만 달랑 떼어놓고 본다.

그렇게 보면 무엇이 그냥 하늘에서 무질서하게 번덕스럽게 제멋대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 세상이 불합리하고 오리무

중이고 원통하고 절망스럽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악한 일이 일어났다면, 또는 선한 일이 일어났다면 반드시 그 인(因)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중중연기하고 있으니 나 또한 그 악과 선의 인에 일조하였을 것이다.

우리 마음의 순도(純度)가 세상의 순도다.

그러니까 이 마음 제대로 하는 것이, 연기라는 질서의 관점에 서는 것이 세상 평화의 첫걸음이다.

스승의 말씀을 다시금 짚어본다.

“그것만 보려 하지 말고 그것을 있게 한 인(因)을 함께 보라. 모두가 그 인에 그 과(果)로 일어난 것이다. 미숙한 사람은 한정된 차원에서 살면서 그것이 우주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산다.”

한정된 차원에 살고 있으니 있지도 않은 예고에 붙잡혀 지옥을 산다.

우리는 우리 관점의 크기만큼 우주를 세상을, 인생을, 행복을 경험한다.

“전체를 조망하는 사람이 도인이자.”

스승의 말씀을 곱씹는다. 존재계를 관통하는 연기라는 질서를 곱씹는다. 마음이 전체적으로 열린다. 이것은 ‘나’가 아니다. 존재의 전체가 함께하는 무어라 규정할 수 없는 텅 빈 무한이다. 궁극의 쉽이다.

유 소 립

서강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한국여성민우회 편집실장
주간 <내일신문>, <미즈엔> 편집위원 역임
<녹색평론>에 시와 산문 발표 다수
저서 <신주쿠 시공취 비둘기>, <퇴곡리 반딧불이> 등

지혜의 프락 | 사람 중심의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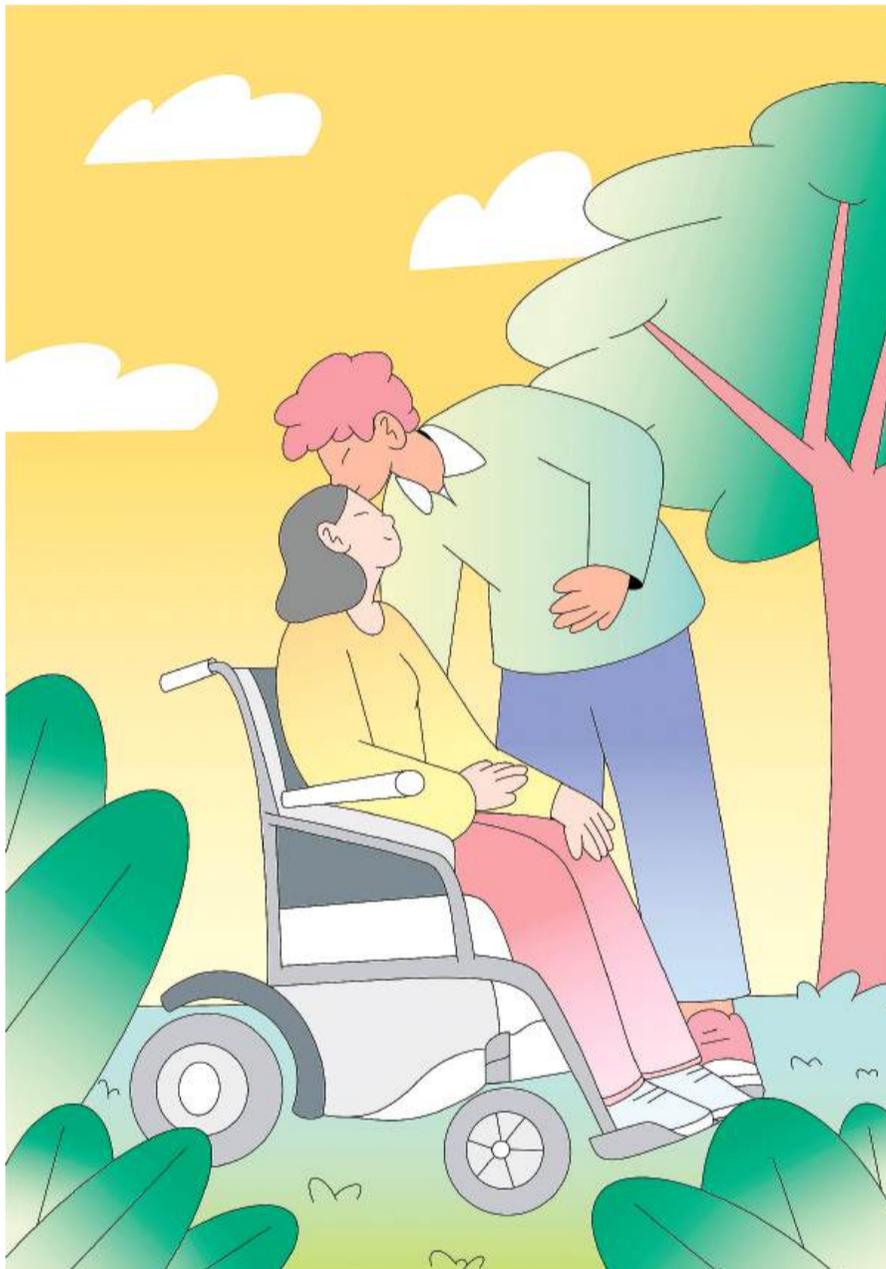
인간은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것일까?

분노, 불신, 배제, 차별... 이런 단어보다 더 끔찍한 것은 혐오이다. 혐오는 종(種)이 다른, 예를 들어 인간과 동물, 인간과 귀신, 이렇게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사람들 사이에서 혐오 현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두려움을 넘어 공포를 느낀다.

남성이 여성을 혐오하고, 일반인이 장애인을 혐오하고, 백인이 흑인을 혐오하고...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서로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요즘은 정치 혐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두 명만 모여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져 팽팽히 대립하며 서로의 이념을 혐오한다.

종교 이야기해서 이념이지, 보통 사람의 생각은 감정에 가깝다. 감정은 개인적이고 가변성이 커서 불완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감정만큼 강력한 힘도 없다. 감정은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도 있다. 그런데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의해 다양하게 형성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간의 감정은 철학으로 발전하는데, 철학은 부드러운 학문으로 인간성을 온전히 존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철학은 사랑의 한 형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선한 의지와 희망이 인류에 대한 존중과 결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은 희망을 향하고 있다. 희망이 없다면 산다는 것은 고통이다. 우리 모두 희망으로 만든 꿈이 있기에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인간은 어떻게 희망을 만드는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두려움을 없애 주면 된다.



사람 중심은
원융무애(圓融無礙),
즉, 모든 존재가
서로 방해됨 없이
일체가 되어 융합한다는
이상적인 경지이다

미국의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은 인간이 혐오의 감정을 갖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고 하였다. 두려움은 인간이 살면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다. 두려움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여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며 배제하고, 급기야 혐오심까지 만들어 자기를 방어하며 자기가 최고라는 나르시시즘에 빠진다고 한다. 자기가 최고이기 때문에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고 시기하며 지속적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인데, 이런 공격이 자기 자신도 무너트린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 희망은 밖으로 향하고 두려움은 안으로 움츠러든다. 두려움은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나쁜 결과에 집중하고 희망은 좋은 결과에 집중한다. 정치인은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은 사람을 중심에 두고 사람을 둘러싼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존중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사람 중심 사회의 철학은 불교에 잘 나타난다. 불교는 범아일여(梵我一如), 즉 우주와 내가 하나이다. 그리고 중생에게도 불성이 있어서 부처님과 중생이 다르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 사상이야말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인간을 존중하는 체계이기에 불안이 사라지고 희망을 품게 된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부르짖었던 '사람이 먼저다'는 수직 관계이지만, 사람 중심은 원융무애(圓融無礙), 즉 모든 존재가 서로 방해됨 없이 일체가 되어 융합한다는 불교의 이상적인 경지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에 대해 이해하려는 마음을 조금만 갖는다면 성차별, 장애차별, 인종차별 등으로 인한 혐오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혐오하는 것은 인간 세상의 붕괴를 초래한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면 누구와 살 것인가?

중생은 불성을 가진 존엄한 존재이기에 사람 중심의 사회가 되어 모든 사람이 사회권(social rights)을 누리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희망이 가득한 불국토가 되기를 기원한다. 편집실

살다 보면 **복을 짓는 기도**

지혜와 공덕을 쌓아 영원히 새지 않는 '무루복'을...

쌀이었다. 채 밟지 않은 시간, 어둑한 소나무 숲에서도 도드라져 보이는 그것은 한 줍쯤 흩뿌려진 쌀이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처음엔 성미 급한 누군가가 질러가다가 흘린 쌀인가도 생각했다. 하지만 숲 어귀에서 시작된 그것은 조붓한 숲길을 따라 열대여섯 걸음 정도 되는 간격을 두고 촘촘히 이어지고 있었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다. 운동을 나온 사람이 없었던 탓에 더 그랬을 테지만 쌀을 보고 그렇게 놀란 것도, 그렇게 섬뜩한 기분을 느낀 것도 처음이었다. 머릿속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봤던 비방의 한 장면이 떠오르면서 쌀을 밟고 지나가는 게 마치 누군가의 주술에 휘말리는 것처럼 여겨지기까지 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였다. 그날 종일토록, 그 후에도 한 이를 깨름칙하던 생각이 궁금함으로 이어지더니, 그 궁금함이 애잔함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전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는데,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면 그 빗속에서 이 숲을 찾았을까. 그리고 이 쌀에는 어떤 기원이 담겼을까. 비를 맞으며 두 손을 모으고 거둬 머리를 조아리는 노모의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다. 걸음마다 기도였을 것 같았다. 그렇게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무엇이 있었을 테지. 어느새 나는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의 기도를 순수한 쪽으로(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도 떠올랐다. 해원(解冤) 굿이었던 모양이다. 곱게 빗어 쪽 찢 머리에 하늘하늘한 소복을 입은 무녀가 처연한 사설(알 아들을 수는 없지만 몹시 슬픈 느낌 이었던)과 함께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당까지 길게 펼쳐진 하얀 천을 온몸으로 가르며 나아가는 동안 그



무명필을 잡고 있던 여인들의 울음 소리가 높아지고, 비좁은 곳청을 가득 메웠던 마을 할머니들도 덩달아 눈물바람을 하던... 길게 펼쳐진 무명필은 이승에서 저승에 이르는 길이라고 했다. 그 천을 찢어 망자의 원과 한을 풀어 주고 극락에 잘 이를 수 있도록 저승길을 밝혀주는 거라고. 그때 대나무 신목을 타고 무녀의 몸이 실려 울고 또 울던 그 영혼은 무사히 저승에 들었을까.

‘을사년 음 5월 초하루, 세상에 평

안을 마음에 자비를.’

아침 여섯 시, 휴대전화 문자의 알람 소리가 잠을 깨웠다.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원* 대종사의 문자다.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따뜻한 축원을 마음으로 고쳐 읽는다. ‘순* 아주머니에게 평안을, 순* 아주머니 마음에 자비를’ 진정,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 세 번 거듭해서. 지난해 가을부터 그래 왔던 것처럼 오늘도 순* 아주머니는 고운 옷을 차려입고 아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 세 번이나 차

를 갈아타야 한다던데, 산길도 한 시간 남짓 걸어야 한다던데. 부처님 전에 걸린 아들의 위패를 바라보며 애써 웃는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넘치겠지, 아픈 허리 마다하지 않고 108배로 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겠지... 순* 아주머니는 그렇게 매일 초하루마다 아들의 영구 위패를 봉안한 절을 찾았다. 아들이 사무치게 그리울 때마다 그 먼 길을 허위허위 달려간다고 했다. 서른하나 젊은 나이에 불치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 좋은 곳에서 아프지 말고 행복하

기를 빌면서, 그 간절함으로 자신을 일으켜 세운다고 했다.

사람은 그렇게 약한 존재인 것을.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 앞에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인 것을. 그래서 사람은 그 깊은 절망 속에서 누군가를 부르고 매달린다. 그게 기도다. 하느님이면 어떻게 부처님이면 또 어떤가. 아버지라도 좋고 어머니라도 좋다. 절대자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자신을 낮추고 겸허하게 따르겠다는 순응의 마음만 있으면 그게 신앙이고 그게 기도일 테니. 나만의 생각일 수도 있겠으나, 나이를 먹으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삶을 마주하고, 많은 죽음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의 꼭짓점을 향하고 있는 각뿔이나 원뿔 같다고 생각하곤 한다. 각기 색상이 다른 여러 개의 삼각형이 마침내 하나의 꼭짓점에서 모여 삼각뿔도 되고 사각, 오각...의 각뿔이 되고, 더러는 경계도 없이 둥글게 모여져 원뿔이 되는 것처럼 각각의 종교도 저마다의 색깔이 있고 가는 길도 다르지만 궁극의 지향점은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강릉에서는 해마다 강릉단오제가 열린다. 그 꽃은 주신인 국사성황신, 국사여성황신을 비롯해 산신, 생산을 관장하는 신, 수명을 주는 신, 마을과 집을 보호하는 신, 재물복을 주는 신, 질병을 막아주는 신 등 다양한 신들을 모시면서 20여 가지 굿거리를 펼치는 강릉단오굿이다. 이를 두고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 미신 운운하며 반기를 들기도 했으나 강릉단오굿은 미신이 아니라 토속신앙이며, 우리 고유의 민속이자 문화유산으로 봐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잠잠해졌다.

이렇듯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하지만 순수한 무속의 본질은 신을 섬기고, 조상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한다. 굿과 기도, 치성을 통해 신의 뜻을 전하고, 사람의 길을 안내하면서 신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섬김과 위함의 신앙이라는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탐내거나 남을 해코지할 목적으로 비방, 부적 등을 쓰는 맹목적인 주술적 행위를 경계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능이자 희망 사항일 것이다. 거기에 더해 종교는 부와 명예, 권력을 바라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선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일깨워 준다. 따지고 보면 모든 종교에 기복적인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구약성서>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자손과 재물, 장수와 같은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느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믿음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불가에도 기복적 교리가 아예 없지는 않다. 죽은 사람의 넋이 정도나 천상에 나기를 비는 천도재나, 부처님께 새집에 입주했거나 이사한 연유를 알리는 입택 고불식(古佛式), 수능과 대학 합격 기원 100일 기도, 기와 불사 등이 그것이다.

『금강경』에서도 줄어들지 않는 무루복(無漏福)과 영원하지 못한 유루복(有漏福)이 있으니, 하늘에 쏘아 올린 화살처럼 한시적이고 허망한 유루복을 따르지 말고, 지혜와 공덕을 쌓아 영원히 새지 않는 무루복을 지으라고 한다.

가톨릭 역시 사람이나 사물에 하느님의 은총이 내리기를 비는 축복(祝福)과 미사를 통해 올리는 빵과 포도주처럼 사람이나 물건을 하느님께 바쳐서 거룩하게 하는 축성(祝聖), 사제가 하느님을 대신해서 복을 내려주는 강복(降福)이 있다. 불가에서 합장과 독경, 염불, 백팔배하는 것처럼 가톨릭에서는 성호경과 로사리오 기도, 십자가의 길 등으로 기도를 한다. 불가에서는 복을 비는 기도보다 복을 짓는 기도를 하라고 한다. 가톨릭에서도 내가 아닌 남을 위한 기도를 중하게 여긴다. 부처님의 가피와 하느님의 강복이 여타의 종교와 만나 어떤 모양의 각뿔을 만들어낼지... 자못 기대가 된다.

이 옥 경

수필가 · 방송작가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가로세로 총/지/문/답

①㉠					㉡		②		㉢
			③㉣						
⑤	㉤						④	㉥	
				⑥㉦					
⑧							⑦		
			⑨			㉧			
㉨		㉩		⑩					㉪
⑪			㉫						⑫
			⑬			㉬			
						⑭			⑮

가로 열쇠

- ① 양력 7월 15일, 총지종의 하반기 49일 불공 회향일(우란분절)
- ② 먼 곳의 물체를 확대하여 똑똑하게 보이도록 만든 광학 기계
- ③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한약재상이 모여 있는 곳, 서울 동쪽 ○○시장
- ④ 밤에 집 근처 가까운 곳에 놀러 가는 일, 밤 산책
- ⑤ 조선 중기, 서산 대사 휴정 스님이 지은 불교의 개론서
- ⑥ 금으로 장식하여 만든 향로
- ⑦ 줄로 만든 밧, 울무의 다른 말
- ⑧ 대나무 끝을 구부려 손 닿지 않는 부위를 굽을 수 있도록 만든 물건
- ⑨ 두 사람이 맨손으로 서로 맞잡고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조르거나 놀러 승부를 겨루는 운동
- ⑩ 조선 제21대 영조의 둘째 아들, 골육상잔의 비극적 사건
- ⑪ 백중날 아귀도에 떨어진 모친을 구제한 부처님 10대 제자 중 한 명
- ⑫ 전라남도의 남동쪽에 있는 밤바다가 유명한 도시
- ⑬ 특정 분야의 일을 줄곧 해 와서 그에 관해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 ⑭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⑮ 홍보석이라 불리는 7월의 탄생석

세로 열쇠

- ㉠ 바다와 육지가 서로 닿아서 길게 뻗은 선
- ㉡ 젤라틴, 계란 흰자, 설탕, 향료, 식용 색소 따위를 섞어 거품이 일게 한 다음 굳힌 양과자
- ㉢ 경비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곳
- ㉣ 어떤 사물의 바깥쪽 경계에 가까운 부분
- ㉤ 사기로 만든 국그릇이나 밥그릇
- ㉥ 앤티가구에 많이 사용되는 짙은 적갈색을 띠는 원목
- ㉦ 귀, 눈, 입, 코를 아울러 이르는 말
- ㉧ 석가모니 부처님을 높여 이르는 말
- ㉨ 제문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간지 따라 정한 해로 말하면...
- ㉩ 두 다리로 페달을 밟아 바퀴를 돌림으로써 움직이게 하는 탈 것
- ㉪ 승직자 입는 법의, ○○와 장삼
- ㉫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 논밭에 세워 두는 조형물
- ㉬ 조선 시대, 의금부에 속한 벼슬아치

생각의 열매

차방의 기억

기억이 물건의 가치를 좌우할 때가 있다. 추억이 깃든 것은 더 소중히 여겨지고, 하나의 물건이 사람과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어떤 경우엔 아프고, 어떤 것은 기쁘며, 어떤 기억은 깊은 생각을 준다.

얼마 전 오래된 차 한 통을 찾았다. 대략 4, 5년은 지난 것이다. 차의 이름은 봉황단총(鳳凰單叢), 중국 광둥(廣東) 지방 어디쯤에서 만든 반발효차라 했다. 어느 봄날 누군가로부터 선물 받았다가 그동안 잊고 지냈다. 차에 대한 조예가 없어 그 격과 질을 알지 못하나 맛은 순하고 향이 좋았다.

차를 마시는 내내 차를 건넬던 이가 떠올랐다. 그는 중국을 오가며 차와 다구 등을 가져다 팔던 상인이다. 무역하다가 차에 눈을 떠, 그것으로 생업을 삼았다고 했다. 눈썰미가 좋고 심미안이 있어 그가 구해오는 차는 무척이나 좋았다. 베이징이나 윈난(雲南)의 오래된 차 시장을 헤매고 다니지 않으면 구하지 못할 차들을 적당한 값에 팔던 터라 종종 신세지곤 했다. 그는 자신의 성품대로 장사했다. 사람을 좋아했으며 깍쟁이처럼 이익만을 위해 마음을 뒤집는 일 따위는 하지 않았다. 때문인지 그의 차방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느 해 막 봄이 시작되는 날, 차를 구하러 그의 차방에 들렀다. 차 한 통을 사고, 차 한 주전자를 나눠 마셨고, 더불어 새로 들어온 것이라는 차 한 통을 선물 받았다. 그것이 봉황단총이었다. 보답으로 나는 그에게 책 한 권을 주었다. 그 후로 그를 보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 그곳에 들렀으나 문은 닫혀있었다. 소식도 끊겼고 종적을 알 수도 없었다. 신상에 변동이 생겼는지, 워낙 박한 이문의 장



사라 그만 접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추측했을 뿐이다. 그리고 오래도록 그를 잊고 지냈다.

차통을 열면서 조용하면서도 사람 좋던 그의 웃음을 생각했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이 어떤 물건에 묻어 오래도록 남아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신비롭다. 차를 우리며 그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다. 이 차가 없었다면 그에 대한 기억은 영원히 사라졌을 것이다.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내가 건넬던 책 한 권을 아직도 갖고 있을까. 어느 심란한 밤, 책 속의 문장 하나가 그에게 나의 기억을 떠올리게 할까. 황갈색 차를 따르며 생각은 깊어졌다.

어떤 장소나 물건이 누군가의 기억을 살려내는 것을 보면, 기억은 의식의 내면뿐 아니라 감각의 외부에도 깃들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차를 팔던 이가 그가 남긴 차 한 잔으로 되살아났듯이 문득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으로 기억될까를 고심하게 됐다. 한 잔의 차로 비롯된 생각은

질문하기, 목적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

적 성취보다 상도를 중시했던 대가가 어떠한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의 차방이 있던 곳을 지날 때마다 한 사람의 부재를 아쉬워하고 좋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할 뿐이다.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도(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영국 소설가 조지 오웰은 신산(辛酸)한 삶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가치를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Why I Write)>에 적어두었다. 작가로서 글을 쓰는 이유를 “가장 따를만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불의를 감지하고 시대가 만든 잘못된 제도에 저항하며 인간의 평등을 말하기 위해 글을 쓴다고 했다. 자신의 신념을 다만 ‘헛소리’에 그치지 않게 하려고 그는 스페인 내전에서 전체주의에 맞서 국제여단의 일원으로 총을 들기도 했다. 세상의 호평을 받는 작품을 쓰고 나서도 그를 사로잡은 것은 역시 ‘나는 왜 쓰는가?’를 묻는 말이었다. 그가 질문을 멈추었다면 그의 작가정신도 빛을 잃었을 것이다.

상인이거나 작가가거나, 불자이든 아니든 모두가 질문을 던질 수 있기를 바란다. 질문을 그칠 때 우리의 성장은 멎고 정신은 욕망의 뒷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나는 왜 기도하는가?’,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를 늘 물었으면 좋겠다.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어도, 질문을 포기하지 않는 한 목적의 노예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을 되짚어 묻는 말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멀리까지 나갔다.

자본주의의 가치는 단순하다. ‘최소의 투자로 최대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옛 상인의 태도와는 일정한 선을 긋고 있다. 오랜 전통 속의 상업은 이익 위에 사람 사는 도리가 있음을 잊지 않았다. 상인에게도 상도(商道)가 있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차를 팔던 그는 과거 몇 차례 사업의 실패를 거치면서 늘 묻게 됐다고 했다. 자신이 그 일을 왜 하는지? 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왜 하필이면 차를 파는지. 한번 시작된 질문은 해답을 주기보다 끊임없는 질문을 던졌을 것이다. 성과만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묻지 않았을 질문들이다. 자본주의는 과정과 수단에 대한 고민보다 그 성과에 더 크게 주목한다. 좋은 상인보다 성공한 사업가를 더 높이 산다.

차를 팔던 그는 자기 일을 “가진 재능과 자산으로 사람들이 더불어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했다. 그가 사라져 버린 지금 자본주의

김 천

작가, 시나리오, 다큐멘터리 제작
동국대학교 인도철학과
저서 <불공 잘해라>, <시대를 이끈 창종자> 외

소통의 한의학
치료팔법 治療八法 과
화법 和法 의 지혜

‘불균형을 조화로 이끈다’ 진정한 치유이며, 평화의 초석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은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 부모와 자식 간, 부부간, 친구 간의 다툼은 타인과의 마찰보다 훨씬 큰 고통을 준다. 평소 서로 의지하고 기뻐했던 만큼 실망과 분노도 크기 때문이다. 또한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은 쉽게 단절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형제와의 작은 오해로 수십 년 등을 지고 살아가고, 어떤 부부는 한마디 말다툼이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처럼 가까운 관계일수록 갈등은 더 아프고 치명적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화해가 더욱 중요하다. 감정 의 골이 깊어질수록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걸음 물러나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다.

이 점에서 한의학의 치료 원리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준다. 한의학에는 ‘치료팔법(治療八法)’이라는 개념이 있다. 팔법이란 발한(發汗), 토법(吐法), 하법(下法), 화해(和解), 온법(溫法), 청법(淸法), 보법(補法), 소법(消法)이다. 이는 인체 내부의 불균형과 병리적 상태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향을 정하는 방법론이다. 청법이나 한, 토, 화의 치료법이 적을 물리치는 공격적 치료법이라면, 화해법은 인체 내의 상충하는 기운을 조화롭게 풀어주는 치료법이다. 몸속 장부 간의 불화나 기혈의 부조화 상태에서 이를 조율하여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화해법의 기원은 후한 시대에 편찬된 고전 의서 <상한론(傷寒論)>에서 찾을 수 있다. 장중경(張仲景)이 저술한 이 책에는 표(表)에서 리(裏)로 전변되다가 표리 간에 존재하는 복잡

소시호탕이 억눌린
간기(肝氣) 풀어주듯,
인간관계도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야
상호 이해 가능

한 증상군에서 화해법을 사용하여 병증을 치료하는 여러 처방이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가 ‘소시호탕(小柴胡湯)’이다. 이 약은 체내의 억눌린 기운을 풀어주고 표와 리를 조화시켜 병을 다스린다. 또한 간비불화(肝脾不和)로 발생한 다양한 병증도 간장과 비장의 화해를 이끌어내 치료할 수 있다.

스트레스로 생기는 소화장애, 흥민협통, 월경불순이나 생리통, 우울증 등에도 소요산[당귀(當歸)·시호(柴胡)·백출(白朮)·백복령(白茯苓)·백작약·감초 등을 넣어 달여 만든 약]이나 시호소간산[시호(柴胡), 백작약(白芍藥), 지실(枳實), 감초(甘草), 천궁(川芎), 향부자(香附子), 청피(靑皮) 등을 넣어 달여만든 약으로, 한의학에서 스트레스와 간울증(肝鬱症)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함] 같은 처방을 활용하여, 간장과 다른 장기의 상충을 화해시켜 치료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화해법의 개념이 인간관계의 갈등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의 몸속 장부가 서로 불화하여 병이 생기듯, 사람 사이에서도 감정의 불균형이 갈등을 낳는다. 한쪽이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한쪽은 움츠러들고, 쌓인 감정은 결국 폭발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강압적인 해결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조율하고 상호 이해를 넓히는 ‘심리적 화해법’이다.

예를 들어 부부 싸움 후, 혹은 형제 간의 심각한 다툼 이후, 대화가 단절된 상황을 떠올려 보자. 이때 필요한 것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언쟁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돌아보며 감정을 풀어주는 대화이다. 왜 그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묻고 들어주는 과정이야말로 화해의 시작이다. 마치 소시호탕이 억눌린 간기(肝氣)를 풀어주듯, 인간관계에서도 억눌린 감정을 부드럽게 풀어야 비로소 상호 이

해가 가능해진다.

한의학의 화해법은 단순히 약물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불균형을 조화로 이끈다’라는 큰 원칙이다. 우리 인간관계의 갈등도 같은 원리로 접근할 수 있다. 나아가 민족 내부의 갈등, 국가 간의 갈등에서도 이제 화해법의 원리를 적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서로의 입장을 인정하고, 상처를 어루만지며, 균형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치유이며 평화의 초석이다.

정은철

나무와 숲 한의원 원장

걷는 자의 기쁨 | 군산으로의 시간여행

수탈의 항구에서 역사의 거울로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군산내항 선창가

일제강점기, 군산은 호남평야의 곡식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실려 나가던 대표적인 수탈항이었다. 비옥한 평야에서 피땀으로 일군 쌀은 강제로 걷혀 이곳 군산항에 모였고, 거센 파도를 건너 열도의 창고를 채웠다.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인이 이곳에 터를 잡기 시작하면서 일본 자본이 가장 먼저 침투한 도시가 되었다. 돈이 돌기 시작하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군산으로 군산으로 모여들었다.

군산 거리에는 그 시절의 기억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구불구불한 골목과 바랜 건물들은 말없이도 그 시대를 증언한다. 한때 왜구를 물리치고 진포대첩을 이뤄냈던 이곳이, 불

과 몇 세기 뒤에는 수탈의 전진지가 되었다는 역사적 아이러니 앞에서 마음은 서늘해진다. 군산 곳곳에 남은 근대문화유산은 단지 옛 건물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기억이며,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역사 그 자체다.

쇠락한 항구, 꾀보선창의 기억

군산항 내륙 깊숙한 곳, 꾀보선창. 객주가 언청이(꾀보)였다 하여 붙였다는 설이 있으나, 정작 그 유래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다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사람들은 이곳을 그렇게 불렀고, 이름은 현실이 되었다. 한때는 돈과 사람이 몰려들던 변화한 선창. 땅을 팔고, 짐을 꾸려, 전국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북적였던 곳은 지금,

쓸쓸히 적막을 품고 있다.

선창길을 따라 걷다 보면, 채만식의 소설 <탁류> 속 정 주사가 똑딱 선을 타고 이곳에 도착하던 장면이 떠오른다. 꾀보선창은 단지 배가 닿는 곳이 아니라, 조선인의 삶이 부서지고 흘러든 공간이었다. 지금은 간판 글씨가 벗겨진 중국집 ‘태평각’의 흔적, 물 빠진 항구에 떠 있는 몇 척의 낡은 배가 그 시절의 그림자를 간직하고 있다.

부잔교(浮棧橋)에 발을 디뎠다. 수면 위에 떠 있어 밀물과 썰물에 따라 오르내리는 이 다리는, 3,000톤급 증기선이 닿을 수 있었던 군산 수탈의 상징이다. ‘장미동(藏米洞)’이라는 지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옛 일본18은행

명에서 알 수 있듯, 이 일대는 쌀을 저장하고 반출하던 중심지였다. 기차선로가 어지럽게 얽혀 있던 그 자리에 서면, 역사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른다.

건축물이 증언하는 시간



옛 군산세관

군산 거리에는 일제강점기의 흔적이 도시의 곁을 따라 배어 있다. 구 조선은행, 일본 제18은행, 그리고 구 군산세관. 이 건물들은 단지 아름다운 석조물이 아니다. 역사의 불편한 진실을 증언하는 화석들이다. 특히 구 조선은행은 소설 <타류>의 고태수가 근무하던 공간으로, 문학과 현실이 교차하는 상징적인 장소다.

구 군산세관은 서울역, 한국은행과 함께 서양 고전주의 양식을 보여주는 3대 건축물로 꼽힌다. 섬세한 장식과 대칭미는 눈길을 끌지만, 그 아름다움 이면에 담긴 시대의 아픔을 잊어선 안 된다.

그리고 군산 시간여행의 중심에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 있다. 2011년 개관 이래 군산의 아픈 역사를 고스

란히 품은 이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로 과거를 현재로 소환한다. 근대 도시 군산의 탄생과 변화, 그리고 조선인의 삶과 저항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이곳은 반드시 둘러보아야 할 공간이다.

해망굴을 지나 월명산으로

1926년 개통된 해망굴은 군산 도심과 해망동을 잇는 터널로, 그 당시 군산항으로 향하는 물류를 빠르게 운반하기 위한 전략적 통로였다.

수탈을 위한 효율성, 그 목적으로 인해 도시는 내항 중심으로 계획되었고, 그 흔적은 지금도 선명하다. 이제는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도보용 관광지로 남아, 역사의 긴 어둠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해망굴

해망굴을 지나 월명공원으로 올랐다. 장계산과 월명산이 감싸안는 산기슭 길을 오르다 보면 금강하구언이 한눈에 펼쳐진다. 바다가 강을 삼키듯 안고, 또 그 강이 다시 흘러 나가는 풍경 앞에서 마음 한편이 멍멍해진다.



히로쓰가옥



동국사 대웅전

신흥동 히로쓰가옥과 동국사

신흥동 일대는 일제강점기, 일본 상류층과 유력자들이 살던 고급 주택지였다. 그중 가장 잘 보존된 건물이 히로쓰 가옥. 목조 2층의 일본식 가옥은 정원, 실내 구조, 외벽의 디테일까지 완벽히 보존되어 있으며, 영화 <장군의 아들>과 <타짜>의 촬영지로도 잘 알려져 있다. 누군가는 이곳에서 군산의 쌀과 부를 끌어 모았겠지만, 지금은 역사의 풍경으로 남아 그 허망함을 되새기게 한다.

동국사(東國寺)는 해방 이전 일본 승려들이 세운 금강사(錦江寺)였으나 광복 후 대한불교조계종 동국사로 바뀌었다. 일본식 목조건축 양식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마치 일본의 한 절간처럼 느껴진다. 대웅전 곁, 종루 옆에는 평화의



동국사 평화의소녀상

소녀상이 자리하고 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서 있는 소녀의 모습은, 중요한 공간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한다.

군산에서 걷는다는 것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지였던 초원사진관에 들러 한 장의 사진을 남기고, 이성당 빵집에서 빵을 사며 군산에서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역사는 아픈 대로 간직해야만 한다. 군산을 걸으면서 가득했던 근대 문화유산들은 바라보기에 불편했다. 하지만 그대로의 모습으로 재현한 군산에 감사한 마음이 든다. 그 또한 우리의 지나온 역사이기에 다독이고 다시는 재연되면 안 될 교훈으로 간직해야 할 것이다. 역사는 외면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가 걸은 길, 우리가 바라본 건물과 풍경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다시는 되풀이되어선 안 될 교훈이다. 군산에서의 시간여행은,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는 소중한 여정이었다. 예선하게 떠오른다.

박성기

자유 여행가
도서출판 깊은샘 대표
저서 <걷는 자의 기쁨>



조유로의 '그런 약이 있다면'

그런 약이 있다면

조유로

참,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지,
보고 싶은
얼굴만
보이는
약,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리는
약,
참, 그런 약이
있으면
참 좋겠지,
바다도 뜰처럼
거닐 수 있는
하늘도 새처럼
날아
다니는,
그런 약이 있다면
참
좋겠지,
동무 꿈에
어울려
어울려 노는,
그런 약이
있다면
참
좋겠지!

동심이 갖는 꿈, 요술의 약으로 시를 빛었다

동심의 세계에는 이상한 것이 많고, 별난 것도 많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에 키가 구름 높이에 이르는 거인이나 키가 손가락 길이만 한 소인국 사람이 등장한다. 동심은 아주 별난 것일수록 선호도가 높다. 그래서 동심은 정상적인 동물보다 머리가 여러 개 달린 동물, 괴상한 힘을 가진 동물을 좋아한다.

이것은 동심이 갖는 꿈이다. 그 꿈이 요술(magic)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동심을 바탕으로 창작되는 아동문학에서는 이런 매직을 하나의 원리로 삼는다. 이를 아동문학의 매직성(性)이라 이름 지어 놓고 있다. 매직과 판타지가 아동문학, 특히 동시의 세계를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동시가 재미나고, 해뽀 직한 문학인 것이다.

'그런 약이 있다면'의 작가 조유로(曹有路, 1930~2004)의 동심에, 있었던 꿈은 다양하고 특이했다. 그래서 그는, 요술의 약을 시로 빛는다. 먹으면, 보고 싶은 얼굴만 눈에 보이게 되는 요술의 약을 시로 빛었다. 먹으면, 듣고 싶은 이야기만 귀에 들리는 약을 시로 빛었다.

물 위를 걷는 기적을 행한 분은, 부처님과 예수님뿐이다. 먹으면, 부처님과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되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약을 시로 빛었다. 그것을 먹으면 금방 몸이 가벼워져 새처럼 하늘을 자유로이 날아다닐 수 있는 약을 시로 빛었다. 그 약만 먹으면 맘먹은 대로 꿈속을 드나들 수 있게 되는 약을 시로 빛었다. 내 꿈속에 동무가 와서 어울리는 꿈은 예사로운 꿈이지만, 동무의 꿈속에 내가 들어가 어울리는 꿈을 시로 빛은 것이다.

표현에는 '그런 약이 있으면...' '그런 약이 있다면...' 하고, 가정법을 썼지만 실지로 그런 요술 약을 만들어 시행에다 담아 놓은 것을 독자가 읽고 있지 않은가.

그런 기적을 이를 만치 조유로는 개성이 있는 시인이었다. 그러한 개성이 시의 전면에 나타나고 있다. 우선 이 시 한 편을 보면, 시행이 짧은 것에서 독자의 관심을 모은다. 이것이 조유로 시의 개성이요 특징이다.

이런 입체적 시행 배열은 시각적 미(美)를 노린 것이기도 하다. 시각적으로도 시가 경쾌해 보이지만 음절의 흐름에서 리듬감을 느끼게 한다. 여러 면으로 개성이 담긴 시편이다.

조유로의 본명은 경현(庚鉉)이요, 유로는 필명이며, 올곧은 길을 뜻한다. 1960년대 초 한국 동시 운동에서 선구자의 한 사람이었으며, 많은 실험을 통해 동시 문학을 확립하였다.

신 현 득

아동문학가, 시인





불교총지종 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5월 21일 ~ 6월 23일까지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히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관성사	법선	5/21	10,000	벚고을어린이집	이민선	6/1	80,000	총지사	백귀임	6/10	10,000	
국광사	진여	6/20	10,000	사원명 무기명	하명순	5/26	10,000		신현태	6/11	10,000	
기로스승	공덕성	5/21	20,000		삼밀사	박필남	6/13		10,000	무명씨	6/17	50,000
	수증원	5/21	10,000	묘홍		6/9	10,000		록경	6/20	20,000	
	밀공정	5/21	10,000	석관실버 복지센터	우귀연	6/9	30,000		통리원	김평석	6/19	10,000
	법지원	5/21	10,000		나석원	5/23	50,000		혜정사	최영례	5/26	10,000
	일성혜	5/21	10,000		이태운	5/25	10,000			이은별	5/23	10,000
	사홍화	5/21	10,000	세곡키움센터	박현정	5/25	20,000		화음사	행원심	5/23	10,000
	선도원	5/21	10,000		신찬호	5/26	10,000			강동화	5/28	10,000
	안주화	5/21	10,000	수계사	최선해	5/23	10,000			송영근	6/1	10,000
	진일심	5/21	10,000	수인사	자심관	5/21	10,000	송하나		6/1	10,000	
	최상관	5/21	10,000	시법사	법상	6/16	20,000	송호영		6/1	10,000	
	연등원	5/21	10,000		혜광	6/8	10,000	박대영		6/1	10,000	
	자선화	5/21	10,000	실지사	이순영	6/8	20,000	박대성		6/1	10,000	
	승효제	5/21	10,000		정우석	5/27	10,000	홍춘자		6/1	10,000	
	주신제	5/21	10,000	아동회관어린이집	황성녀	5/29	10,000	무명씨		6/9	10,000	
총지화	5/21	10,000	진금선		6/1	80,000	이성희	6/16		10,000		
덕화사	법상인	6/16	20,000	양지동복지회관	서영주	5/26	10,000	힐스어린이집	행원심	6/16	10,000	
동해사	김진화	5/22	10,000	양지어린이집	정동숙	5/27	80,000		이은별	6/16	10,000	
	김진화	6/12	10,000	운천사	반야화	6/11	30,000		곽방은	6/10	80,000	
	송인근	6/20	10,000		보명심	6/16	10,000		정건호	5/29	10,000	
만보사	강명순	6/4	10,000	우인	6/16	10,000	정희련		5/29	10,000		
	김정희	6/19	10,000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5/26	80,000		이수영	5/26	10,000	
밀인사	황갑용	6/8	10,000	잠원햇살어린이집	김선희	5/26	80,000		위드다르마 후원	이인성	5/27	5,000
	박길선	6/10	10,000	정각사	노점호	5/21	10,000			이혜성	5/27	5,000
	덕광	6/10	20,000		안한수	6/8	10,000			진여	6/2	10,000
법성사	남혜	5/21	10,000		탁상달	6/11	10,000			보명심	6/16	10,000
	장정숙	6/16	10,000		노점호	6/18	10,000	우인		6/16	10,000	
	신말심	6/16	10,000		법일	6/20	10,000	자행정 전수		6/21	10,000	
법천사	반야심	6/2	10,000	제석사	이진승	6/20	10,000	남혜		6/23	10,000	
법향사	인선	5/21	10,000	총지사	김정환	6/2	10,000	법공		6/23	10,000	
	정계월	5/21	10,000		유은혁	6/5	10,000	자선화		6/23	10,000	
	박미경	5/26	10,000		정연경	6/6	10,000	총지화		6/23	10,000	

권선문

만보사 승강기 불사

총지중의 발전과 교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스승님과
교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만보사는 모든 교도들이 편안히 머물고 정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보사의 스승과 모든 교도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하신분들께 더 나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원당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보사 승강기 불사를 발원합니다. 이 불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뜻있는 모든 분들의 따뜻한 정성과 동참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원력을 이루고
그 공덕이 우리 모두에게 회향되리라 믿습니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길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며,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모금기간 총기 54년(2025년) 7월 1일 ~ 8월 31일
계좌번호 새마을금고 9002-2068-1602-3(민순분)
권선문의 만보사 042)255-7919

만보사 주교 승원 정사 합장

